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중 선 로 동 당

제6호 [루계 제24784호] 주체104(2015) 년 1월 6일 (화요일)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필승의 기상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적극 추진

새해에 들어와 2만여t의 유기질비료, 소석회와 많은 건설자재 생산 의 대축전장에 뗫뗫이 들어설 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분발해나선 군인건설자 등 많은 건설자재를 생산 및 운 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중앙현 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칼 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백두의 혁

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

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

바람정신으로 군민대단결의 위

산기지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새해에 들어와 자동차, 뜨락또

르와 손달구지 등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2만여t의 유기질비

료, 소석회와 막돌, 목재, 혼석

력을 높이 떨치며 세포지구 축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하게 짜고들었다.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

치며 축산불생산과 기지운영 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 LICH.»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

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새해 첫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 올해 맡겨진 대상공사에 필요 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파 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

> 일군들은 이미 조성한 먹이 풀판의 정보당 생산량을 늘이 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 을 높이는데서 찾고 모든 단위 들에서 질좋은 유기질비료, 소 과 돌격대원들이 김정일애국주 석회생산과 실어내기를 통이

지휘를 실속있게 하였다. 또한 한 건설자재확보와 수송도 앞 질러 내밀도록 하였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지휘판들과 성,중앙기판돌격 대, 각 도려단의 일군들은 들끓 는 전투현장에서 군인건설자들 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

크게 벌려나가도록 전투조직과 고 내 나라,내 조국의 부강번 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 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일대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 었다.

>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은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혁 명군대의 본때와 기질로 투쟁 할 때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크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새 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의 지휘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조국보위 에서뿐아니라 당의 강성국가건 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언 제나 기수, 돌격대가 될 신심드 높이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첫 전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 켰다. 그들은 륜전기재들의 가 동률을 높여 20여리구간의 도 로를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였 다. 그리고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을 높이 발휘하며 5 300여t의 니탄을 캐고 구운 흙도 생산하였다.

인민보안부려단에서 당의 부 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올해 의 보람찬 투쟁에서도 당의 사 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본 보기가 될 목표밑에 지력을 높 이기 위한 전투를 강도높이 벌 렸다.

려단에서는 수송조직을 짜고 탁흙 500여t, 풀거름 230

OI

원

들어 1 000여t의 니탄과 소석 회를 와닥닥 운반하였다. 또한 160여t의 진거름을 운반하 여 수백t의 물거름을 생산해가 지고 먹이풀판에 실어냈다.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해당 단위 책임일군들과의 긴 밀한 련계밑에 지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완강하게 내밀 었다.

인민봉사총국 책임일군들이 먹이풀판의 토양조건을 구체 적으로 따져보고 300여t의 집짐승배설물을 집중수송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 었다.

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 들은 올해 자주꽃자리풀의 생산 량을 정보당 4 Ot이상으로 높 일 목표를 세우고 유기질비료생 산과 운반을 전투적으로 내밀었 다.이들은 집짐승배설물에 자 체로 생산한 수백t의 부식토, 개 바닥흙을 섞어 1 000t이상 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 기 위한 전투를 본때있게 내밀 었다. 그리고 륜전기재들과 수 십대의 손발구를 리용하여 유기 질비료를 매일 수십t씩 먹이풀 판에 실어냈다.

조선대양총회사돌격대의 일 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 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 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 굳은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개바 여t 등 각종 거름원천으로 1 000여ぱ의 질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리고 자체로 만든 70여대의 손발구를 리용 하여 매일 수십t의 유기질비료 를 실어냈다.

경공업성돌격대에서는 170 여t의 니탄을 운반하고 100여t 의 개바닥흙을 파서 거름원천을 확보하였다.

대성지도국 일군들과 돌격 대원들은 계획된 량의 유기질 비료를 열흘동안에 실어낼 높 은 목표를 세우고 사회주의경 쟁의 불길드높이 맡겨진 전투 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 행하였다.

철도성려단과 륙해운성,외교 단사업총국, 보건성돌격대를 비 롯한 많은 성,중앙기관돌격대 들에서도 유기질비료생산을 힘 있게 벌리면서 대상건설준비를 위한 건설자재확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각 도려단들에서도 총공격전 의 기상 높이 떨치며 조국해방 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 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다.

라선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 대원들이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 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 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자 신만만한 배심으로 수십대의 륜전기재들과 손발구를 리용하

과 수백t의 유기질비료를 운반 하였다.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 대원들도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물모이못건설에서 혁신을 일으 키면서 거름원천으로 쓸수 있는 1 000여**㎡**의 개바닥흙을 확보 하였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은 숭고 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 지고 목재생산과 소석회, 유기질 비료생산의 앞장에 서서 돌격대

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뚝감자생 산을 기계화할수 있는 설비제 작을 도맡아안고 필요한 로력 과 륜전기재부속품들도 지체없 이 보장해주어 새해전투에 이 바지하였다.

황해북도려단에서는 석회로 를 만가동시켜 소석회생산계획 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건재생 산기지에서 건설자재생산을 실 속있게 진행하였다.

평양시, 함경남도려단을 비롯 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올해 계 획된 대상건설을 무조건 끝내 기 위한 마감자재확보와 공구 준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천군사단의 많은 단위들에 서도 지력을 높이고 건설자재 를 확보하기 위한 돌격전이 힘 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 한 현장지휘를 실속있게 짜고 들었다. 그리고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 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사단적으로 하루동안 에 수천t의 거름을 생산하고 운 반하였다.

본사기자 정 영 철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경공업성돌격대에서-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일 정 계 행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힘차 게 떨쳐나선 굴지의 석탄생산기 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 소에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5배 로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전 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 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 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 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 LICH. »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 을 늘일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 를 취해주시고 화력타보장을 말 은 단위들의 탄부들에게 은정어 린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의 믿음과 사랑에 크게 고 무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 부들은 지난해에 높이 세운 년 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 였으며 12월말까지 그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만t의 석탄을 더 증산하는 자랑찬 성 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의 신년사를 격동된

심장마다에 받아안

은 김정숙평양방직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게 다그치고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구 청 년 탄 광 신년사에서 석탄공업부문에서 지난해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가르

쳐주시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 장마다에 새긴 련합기업소의 일 군들과 탄부들은 산악같이 일뗘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 위해갈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기어 이 돌파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 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온 탄전이 활화산처럼 끓어번 지고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 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직동청년탄광 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할 일 념안고 석탄증산을 위한 공격전 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섰다.

모든 갱들에서 교대별사회주 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 는 속에 탄팡의 일군들과 탄부 들모두가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 에 떨쳐나서고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투쟁이 힘있 게 벌어지는 속에 갱. 채탄중대 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더 많

합 기 업 련 소

룩되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앙 양된 열의에 맞게 교대별생산조 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보다 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앞장에서 《나를 따 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내 달리고있다. 9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장에서 교대별생산 실적을 1.5배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속에 1개 채타3.4중 대, 1 2 갱 채탄 1, 4 중대, 청 년갱 3중대를 비롯하여 많은 채탄중대들에서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내는 자랑

찬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은 화 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석탄증산 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힘있 게 고무추동하면서 수시로 제기 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즉시에 풀어주어 석탄생산을 중

단없이 내밀도록 하고있다. 탄광의 탄부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 휘하며 첫 전투에서부터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1 갱, 6 갱, 1 0 갱들에서 증 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이어 2갱 채탄3중대, 6갱 채탄3 보내주고있다. 중대, 8갱 채탄3중대를 비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은 석탄을 생산하는 성과가 이 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질좋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월별,분기별석탄생 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면 서 련합기업소의 년간 석탄생 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지금 막장마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리 고있다.

일군들은 갱, 막장들에 깊이 들어가 여러가지 앞선 채탄방 법과 동발드리우기를 비롯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일 석탄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석탄증 산투쟁에서는 2갱, 3갱, 5 갱, 6갱, 7갱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순천탄광기계공장, 은산탄광 설비부속품공장의 로동자들은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매달 수백개의 탄차바퀴를 생산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감속 기, 탄차, 벨트콘베아부속품들 과 막장소공구들도 석탄증산투 쟁으로 들끓는 탄광들에 제때에

특파기자 리 혁 철

특히 매일,매 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일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며 농사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 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뜻깊은 새해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나 농촌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주어 야 합니다.》

에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황해북도와 함경 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 필승의 기상안고 용기백배하여 사회주 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황해북도에서 새해벽두부 터 농촌지원전투가 힘있게 벌 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4

일 하루동안에만도 수만t의 질좋은 거름과 수십종에 수 만점의 중소농기구, 뜨락또 르부속품, 비닐박막 등 영농 물자들이 협동농장에 수송되

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 원회의 일군들은 오늘의 총공 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드높은 열정안고 농촌지원 전투에 앞장섰다.

일군들은 협동벌에 나가

성의껏 준비한 중소농기구와 을 가지고 성의껏 마련한 지 들에 달려나가 새해전투에 떨

함경남도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이 지난 4일 하 루동안에만도 수만t의 도시 거름을 화물자동차와 뜨락또 르를 비롯한 각종 륜전기재 들에 실어 농촌들에 보내주

었다.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물자동차들을 타고 농촌으로 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 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도 농근맹, 도직맹, 도청년동맹 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 중요공장, 기업소들, 함흥시 와 단천시, 북청군과 함주군, 정평군, 금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올해 첫 도시거름 실어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

뜨락또르부속품 그리고 영농 자재들을 넘겨주고 농장원들

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본분

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 었다. 사리원시에서는 모든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 의 마음안고 천수백t의 질좋

장,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 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농 업생산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

이 짜고들었다.

해주었다.

은 거름과 많은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였다. 이날 시인민위원회를 비 롯한 시급단위들과 여러 공

달려나갔다.

서 원물자들을 수십대의 자동 차들에 싣고 주변농촌들에

신계군과 은파군에서는 수 많은 근로자들이 올해에 기어 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 타는 열의에 넘쳐 륜전기재들 을 총동원하여 자체로 마련한 수많은 영농물자들을 협동농 장들에 보내주었다.

연탄, 황주, 린산군을 비롯 한 다른 군들에서도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 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 를 높이 받들고 많은 거름과 영농물자들을 싣고 협동농장

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도안의 근로단체조직들에 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 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첫 전투부터 붉은기를 휘날리며 용기백배하여 떨쳐 나 성의껏 마련한 수백t의 질 좋은 거름을 주변농장들에 보 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농업근 로자들은 힘있게 진행되고있 는 농촌지원사업에 고무되여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 여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 도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 천t의 질좋은 도시거름을 100여대의 화물자동차들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에 실어 여러 농촌들에 보내

날 함흥시에서는 수백명에

달하는 시급기판 일군들이

동흥산구역 부민협동농장에

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질좋 은 도시거름을 가득 실은 화 달러나가 새해농사차비에 떨 사포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 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 역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주변농촌들에 많 은 거름을 실어다주었다. 이

특히 함흥시당위원회와 시 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도시거름을 마련하여 실어내 기 위한 준비사업을 미리 다 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 어 4일 하루동안에만도 수

서 국의 구슬땀을 흘리였다.

단천시와 신포시, 북청군과 함주군, 금야군, 정평군과 고 주었다. 함흥목재가공공장, 원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 함흥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공 들에서도 이날 도시거름실어 장들과 동흥산구역과 회상구 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 역, 성천강구역, 해안구역과 지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시거름실어내 기에서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사회주의농촌 에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해 분발해나서고 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높이 받들고 당파류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평 양 곡 산 공 장 에 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 산 김 정 숙 평 양 방 직 공 장 에 서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정상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를 위한 경영전략을 뚜렷하게 해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인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 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의 불길을 업을 치밀하게 짜고든데 이어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의 올해신년사에서 우리 어린이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 씩 맡고 내려가 로동자들과 기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공장 대도 함께 돌리고 그들의 생활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마 다에서 학생교복천생산을 힘있 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보아 주며 증산투쟁에로 떠밀어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 《경공업부분에서는 인민들앞 터에 모시는 끝없는 영광을 지 에 지닌 책임과 임부를 깊이 자 닌 견방종합직장 인견천직장의 로동계급이 분발하여나섰다.

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해 12월 이곳 직장을 돌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 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교복생 가지 질좋은 소비품들과 학용 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 품,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시였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어려

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 는 합숙생들속에서 혁신이 창 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 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 는데서 공장종업원들이 한몫 단 단히 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 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긴 인견천 직장의 로동계급이 학생교복천생 산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섰다. 인견천직장의 로동계급은 교

대가 교대를 돕고 기능공이 신 입공을 도우며 첫날부터 다기 대운동을 활발히 벌려 첫날전 투과제를 수행하는 혁신을 창 조하였다.

이곳 직장의 방직공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은 뜻깊은 올해에도 모두가 영 스스로 생산돌격대활동에 망라 되여 다기대운동을 활발히 벌 리며 위훈의 하루하루를 수놓 있다. 아가고있다.

각 경애하는 원수님 의 사랑을 페부로 절 감하며 생활하고있 조되고있다. 공장에 첫발을 들 여놓은데 불과한 신입기대공들 이 청춘의 푸른 꿈과 리상을 보 람찬 일터에서 꽃피워갈 포부 를 안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며 이악 한 증산투쟁을 벌려 기능공들 못지 않게 첫날부터 실적을 올 리고있다. 염색종합직장의 일군들과 로 동계급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 술관리를 짜고들고 제품의 질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과 크나큰 믿음속에 날로 몰라 보게 성장해가고있는 김정숙평양 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예로운 혁신자가 될 열의에 넘 쳐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높이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 최 후 승 리 의 진 군 가 를 높 이 부 르 며 뜻 깊 은 올 해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리 위 대 한

떨쳐나선 각계층 근로자들의 목소리 신심드높이 새해진군길에

뜻깊은 올해의 첫 기슭에서 게이고 도입성과의 위력이라고 그 누구보다 더욱 든든히 신들 메를 조이는것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 상과 총대,과학기술의 위력으 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마디마디에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가 사회주의수호전 의 전초선—파학전선을 지켜선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을 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 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 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 입니다. »

과학기술의 힘

그것은 다름아닌 과학자,기 술자들이 내놓는 연구성과의 무

도 말할수 있다. 그 한건한건의 연구도입성과를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이 걷는 사색과 탐구의 길과 더불어 조국의 전진이 빨

더욱 밝아지기에. 하다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해에도 탐구의 길에 아낌없이 바 쳐갈 지칠줄 모르는 시색과 열정의

라지고 그 길에 바치는 열정의

불길과 더불어 조국의 미래가

원천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난해 1 2월에 열린 국가과 학원창립 62돐기념 과학연구 성과전시회에서 만났던 한 일군 은 이렇게 말하였다.

《례년에 없이 가치있는 과학 연구성과들이 많이 이룩되였습

우리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 로 여기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성과 뿐만이 아니였다.

각지에 파견된 수천명의 2월 1 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 들의 혁혁한 성과, 국가과학기 술발전을 위한 수십건의 중점대 상과제수행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 수많은 발명과 창의고 안들…

농업용나노살균제의 생산도 입, 논벼속성모의 모기르기방법 개선과 주요재배기술의 도입 3S기술에 의한 림농복합경영대 상지선정, 3S기술에 의한 산불 위험평가체계, 마식령스키장 대 화봉의 해돋이시간에 대한 연구 등 국가적의의가 있는 160여 건의 성과들이 지난해에 국가과학 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

그 한건한건의 성과와 더불어 일터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고 인민은 더 높은 문명 의 세계에로 줄달음쳤다.

주체 1 0 3 (2 0 1 4 )년 국가

평양기계대학, 한덕수평양경공

업대학 등 각지 대학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과학연구성과들을 수많이 이룩

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

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장철구평

양상업대학, 라진해운대학과 같

이 자체의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

경을 훌륭하게 개선해나감으로

써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

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고있다.

인 발전과 더불어 시공간적인 제

약을 받음이 없이 누구나 마음대

로 일생동안 선진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닦

말그대로 이 땅은 새 세기 교육

혁명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전

민이 과학기술인재가 되여 조국이

인재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는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 지펴

올리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저 멀리

내다보이는 미래의 언덕,세계

의 상상봉으로 백승의 신심안고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되였다.

이졌다.

뿐만아니라 원격교육의 비약적

표창수여식에서 한날한시에 공 의 길을 함께 걸으며 경애하는 훈과학자칭호를 수여받은 국가

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 구사 박사 부교수 한철훈, 환경 공학연구소 실장 김혜림과학자 부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지난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국가과학원을 찾 으시였던 잊지 못할 정월의 그날 로부터 온 한해가 우리 과학자들 을 위해 흐른것 같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부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위성과학 자주택지구의 다섯칸짜리 새 집 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틀고 연 풍과학자휴양소의 금방석에서 신혼생활과도 같은 부부휴양까 지 하였습니다. 당에서는 크게 한 일도 없는 저희들을 공훈과 학자부부로까지 내세워주었습

《끝이 없는 그 사랑과 믿음에 언제면 다 보답할수 있겠습니 까. 우리 부부는 새해에도 탐구

니다.》

원수님을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 로 받들겠습니다.》

이런 심장을 지닌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의 존 엄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새해에 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나섰다.

하거늘 우리 파학기술의 힘, 그것을 단순히 연구도입성과의 무게와 위력이라고만 말할수 있 으랴.

0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고 모든 경제부문들 에 전진의 활력을 더해줄 과학 기술의 힘에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어버이, 친근하신 스승의 하늘같은 사랑과 따뜻한 정,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다. 새해에도 조국의 휘황한 미래

는 앞당겨질것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한없이 위대하고 따뜻한 사랑 과 정과 믿음의 힘으로!

###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 지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이 뜻깊은 올해에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 확고한 신심에 넘쳐 새해진군길에 떨쳐 나섰다.

위생방역사업은 나라의 문명 정도와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 요한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간직 한 보건성의 일군들은 세계적추 세에 맞게 나라의 방역구조를 완벽하게 갖추어 위험한 전염병 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 치들을 취해나가고있다고 하면 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 속정확히 대응할수 있는 조건마 련에 계속 큰 힘을 넣겠다고 말

하였다. 전국의 치료예방기관 일군들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 이 어려있는 평양산원 유선종양 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 강병원을 본보기로 하여 의료봉 사활동의 정규화, 규범화, 표준 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불

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로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각

지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신의주마이싱공장을 비롯한 여 러 제약공장들의 일군들은 시련과 난관을 자체로 뚫고헤쳐 올해에 기어이 1 0여종에 달하는 의약품 들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것을 결의하였다. 흥남제약공장의 한 일군은 올 해에 현대화 1계렬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실현 하는 한편 의약품들을 국제품질 기준의 요구에 맞게 생산보장하 겠다고 말하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는 생산설비의 CNC화를 다그쳐 끝 낼 만만한 투지에 넘쳐 정초부 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 으켜나가고있다.

평안북도인민병원, 평천고려약 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보건 기관들에서 최신약제기술을 받아 들여 올해에도 즉효성이 강한 고 려약들을 만들어낼 목표밑에 련판 부문 일군들과의 협동작전을 적극 적으로 진행하고있다.

#### 환하신 모습으로 온 높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화력 나라 가정들과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 탄보장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 를 거두었다.

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

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

게 세워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

지금 우리 갱의 탄부

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증산투쟁을 과감

히 벌려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지난해 우리 갱의 탄부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드

하시였다.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해의 축복을 안겨주신 지난해에 갱에서 거둔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리 탄부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고 12월 르느라니 눈굽이 젖어 에는 인민군군인들이 잡은 물고 드는것을 금할수가 없 기가 집집마다에 넘치도록 은정 었다고 하면서 남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탄광 10갱 갱장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차봉화는 이렇게 말하 에 보답하려는 탄부들의 불굴 였다. 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70 석탄공업부문과 화력 돐이 되는 올해에도 우리 갱의 발전소들에서 혁신을 탄부들은 드높은 석탄증산실적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 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겠다.

> 우리 갱의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 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 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화력 탄보장에서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겠다는것을 다시한 번 굳게 결의한다.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 합직장 직장장 한영길은 이렇 게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 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를 받아안은 우리모두의 심장 마다에는 불이 달렸다.

지난해 12월 우리 공장을 찾 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들에서 울리는 우렁찬 동음은 우리 조국의 힘찬 발걸음소리이고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

우리는 그날의 귀중한 말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 때 우리 조국이 전진 하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다는 억척같 은 신념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 는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사 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벌리 고있다.

지난해 5년분계획완수자들 은 6년분계획을, 2, 3년분계 획완수자들은 3,4년분계획 을, 신입기대공들은 2년분계획 수행목표를 내걸고 모두가 다기 대운동에 펼쳐나섰다.

직장의 모든 직포공들이 혁신 자가 되고 우리 원수님께서 아 시는 영웅이 되겠다는 열정은 지금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직포종합직장은 지난 시 기 전옥화, 문강순을 비롯하여 많은 로력영웅들과 선군시대 공로 자들을 배출한 영예를 지니고있는 단위로서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제일 앞 장에서 받드는 혁신자집단으로 이름떨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며올리리

를 드러낼 때, 아이들의 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아

이들이 온 세상 환해지도록 웃고

웃을 때 우리모두의 심장은 또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수많은

현대적인 과학교육설비들을 보

내주시고 모란봉악단의 신작음

악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자들을 자신의 가까

이에 불러주시였으며 저 멀리

섬초소를 찾으시여서도 군인가

족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제 1 3 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고 불후의 고전적

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

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가 온 나라 일군들과 교육자들

의 심장마다에 금문자로 아로새

겨짐으로써 조국은 온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각지 일군들은

지난해 알굑과 고기, 알, 남새,

물고기생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에

억세게 틀어쥐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세차게 고동쳤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한 멋쟁이거리가 통채로 자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분명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인재 강국화!

불러만 봐도 심장이 높뛰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 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 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무궁토록 창창할 내 조국의 밝 은 미래를 다시금 확신한 우리

인민이다. 하기에 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성 국장 한성일은 자기의 심정

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난해 4월 1일 전반적12 년제의무교육의 첫 꽃대문에 들 어선 복받은 새 세대들이 우리 글을 또랑또랑 읽어갈 때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던 우리 들이였다.

경제의 발전을 자랑하는 나라 들에서조차 꿈도 꿀수 없는 희 한한 초고층교육자살림집이 대 동강반에 일떠서고 교육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 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 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

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불같은 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 과학농사지도를 짜고들어

자자구구 새길수록 해놓은 일에 대한 만족감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어깨 가 무거워진다고 하면서 평안 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다수확 품종을 실정에 맞게 배치하고 강냉이농사에서 종자피복제를 100%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영 농시기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잘 짜고들어 알곡생산에 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당 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농사지 도를 잘 짜고들었는가를 돌이켜 볼 때 찾게 되는 교훈이 크다. 우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과 룡천 군 신암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이른큰모에 의한 소 식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소출을 훨씬 높인 경험을 도적으

> 타난 편향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우리 일군들이 앞선 영농방법 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내려먹 이는 식으로 농사지도를 하다나 니 여러 단위들에서 성과를 더 거두지 못하였다.

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

아무리 훌륭한 영농방법이라 고 하여도 그것을 직접 맡아수 행하는 농장원들이 원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것 역시 지난해 는데서 주관적욕망만 앞세우면서 과학농사지도과정에 찾은 또 하나의 교훈이다.

질풍쳐 달려나갈것이다.

과학농사지도를 보다 면밀하

게, 더 실속있게! 이런 목표밑에 지금 우리는 도의 농사대책안을 조항별로 다 시금 따져보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올해 우리 도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은 높다. 하지만 다 바쳐나가겠다.

## 축산불생 산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갈수록 인민생 활향상에서 축산부문이 차지하 는 몫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절히 느끼게 되였다고 하면서 농업성 부국장 조락응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신의주닭공장, 덕천종축장, 운전 군 운하협동농장 축산기지 일군들 과 근로자들처럼 먹이보장이자 축

주체농법학습을 비롯하여 년초 이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부터 짜고들어야 할 일감이 많다. 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과학농

가득 차오른다.

은 이렇게 말하였다.

축산물생산의 정상화는 더는 미룰수 없다. 먹이보장이자 생산정상화이 다. 지난해 여러 단위들의 경험을

우리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 사지도를 더 잘 짜고든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 가슴

우리는 과학농사로 가꾼 소중 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히 안 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뗫뗫이 들어서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 정상화하여

먹이보장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으 면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 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일군들은 자 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 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 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 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올해 축산부문에서는 우량품 종의 집짐승마리수를 늘이는것 과 함께 큰단백풀생산기지를 튼 튼히 꾸리고 호박심기를 대대적 산물생산성과라는 판점을 가지고 으로 하기 위한 목표들을 세웠

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과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먹이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 가지 대책들도 취했다. 높은 물고기잡이성과로

강경수는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 이 물고기대풍을 안아올 충만된 열의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진수를 뼈에 새길수록 인 민들의 먹는 문제해결방도를 구 상하시며 잠 못 이루시고 바람세 찬 포구들을 찾으시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과 수산 부문을 식생활향상의 3대축의 하나로 내세우신 높으신 뜻이 가 슴에 어려와 격정속에 눈물을 흘

리고 또 흘렸다. 지난해 수산물생산계획을 앞 당겨 수행하였지만 보다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올해에 는 황금해력사를 창조한 인민군 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워 서해물고기잡이경쟁에서 첫자 리를 차지할 결심이다. 나만이

### 우리는 축산물생산정상화는 우 리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

표들을 기어이 점령해나가겠다.

을 깊이 명심하고 올해에 세운 목

남포수산사업소 지배인 아닌 모든 종업원들이 이런 드 높은 경쟁열, 투쟁열을 안고 떨 쳐나섰다. 벌써 실천으로 이어지고있

다. 배수리, 그물뜨기현장의 종 업원들이 출어기일을 보장하고 어구를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어로공들은 배수리도 하면서 바다에서의 여 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 지한 협의와 탐구를 거듭하고있

##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여러 생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길 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가슴 이 높쀠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면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분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

바쁜 시기이다.

가지가 아니지만 결사의 자세에 각을 안고 화선의 기관차가 되 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

## 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사시절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산기지들과 함께 온실에서 생산을 보시면서 시종일관하게 강조하 신 문제도 바로 이것이였다.

다. 지금은 어한기이지만 바싹 채야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 록할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더

하륙설비, 물고기가공능력확 장과 연유확보사업도 동시에 내 밀고있다. 걸린 문제들이 한두 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고 한개 수산사업소 의 물고기잡이를 책임졌다는 자 여 돌파구를 열어나가겠다. 하 가 풍기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관철의 앞장에 선 선봉투사가

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들이 덕을 보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우리 농장을 찾으시여 무더운 온실과 여러곳을 오래동안 돌아

지난해의 온실남새재배를 통 하여 우리는 3가지 큰 교훈을

찾았다. 첫째로 우량품종의 온실남새종 자확보에 풍작의 가장 큰 담보가 있다는것이다. 지난해에 좋은 품 종의 온실남새를 재배한 호동들에 서는 레외없이 풍년을 이룩하였 다. 우리는 올해에 품종문제를 결 정적으로 해결할 목표밑에 중앙남 새연구소, 평양시남새연구소와 련 계하여 우량품종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워가고있다. 둘째로 병충해막이대책을 예 견성있게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농약을 벌써 다 확보해놓았으며 병해충 예찰사업을 잘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셋째로 온실남새농사이자 물농 사이라는 교훈이다. 우리는 정초부 터 작전을 면밀히 하고 장천샘물을 리용하기 위한 양수설비들을 더 설 치하며 작업반, 분조마다 보막이를 하여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

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금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장 원들은 당의 뜻대로 사시절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안겨줄 불타는 맹세 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 영 김 남 오 장 0 호 0 0

대통령에 **먄마련방공화국** 게 전 을 보

데이메도

먄 마 련 방 공 화 국 대 통 령

나는 먄마독립 6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 가 있을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교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 > 영 주체104(2015)년 1월 4일

양 평

##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오른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에게 행복만을

리가 강산에 울려퍼지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안겨주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

숭고한 그 뜻을 새길수록 인 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가는 우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 고있습니다. 》 그대는 어머니!

누어주고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 어머니,

하였지만 어머니 하고 부를 때면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인가 우리 일군들이 무엇을

장군님의 념원대로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게 내세우기 위하여 일군들이 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 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 말씀에 천백마디로써도 다 담을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자애로운 인민사랑의 고결한 뜻과 심원한

### 01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의 연단에서 만사 어느 한 시인이 자기의 귀중

> 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 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 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

>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이시기에 펼치시는 구상마다, 새기시는 자욱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이 그리 도 철철 넘치는것 아니라.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 이지 않고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도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록 하시려 불철주야의 현지지도로 오늘도 어머니라 불리우고있다.

## ō

는 그 시책에 떠받들려 이 땅에 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선경들 이 런이어 펼쳐지고있다.

이 땅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을 찍어주시였다.》 《원수님께서 사랑의 친필서한

하여주는 목소리를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 로 한생을 바치는 어머니처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조선로동당,

여

으로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 는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을 우 러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를 높이 모신 크나큰 행복에 넘 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달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 안기며 잊을번 한 잘못까지 도 다 아뢰이는 영원한 삶의 품, 우리 당의 품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오늘도 래일

도 영원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강 원 남

# 것

한 체험을 이런 시구절로 노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절 대적으로!

리 당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젖 어오름을 금할수 없다.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우

## 한품에 안아 피도 숨결도 다 나 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위하여 필요한가고 하시면서

나도 장군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깡그

리 불태워나가려고 합니다.

## 세계가 함축되여있는것이다.

람을 울리는 격동적인 결론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 우렁하신 음성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

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세포비서들입니다. …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하늘같이 내세우고 인 민의 리익을 최우선,절대시하

집을 찾아주시였다.》 《원수님께서 우리들과 기념사진

을 보내주시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리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말

온 나라 인민을 뜨거운 사랑 과 정으로 품어안으시고 마음속 그늘도 말 못할 소원까지도 속 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과 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

### 증산의 돌파구를 혁명정신으로

뜻깊은 2015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 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석탄공 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가 슴은 석탄증산의 일념으로 세차 게 끓고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석탄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을 일 으키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 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뗫뗫 이 들어서자!

이런 불같은 결의를 안고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새해 의 진군길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 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 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 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 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분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성의 일군들과 정무 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 켜온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

지난해에 석탄공업성에서는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하고 수십만t의 석탄을 증산하 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 탄 공 업 성

특히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 방을 지켜선 영예로운 자각을 안고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 지난해 9월~1 2월기간에 이 전시기에 비해 하루평균 석탄생 산량을 1.4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선정해주시고 한해 가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에 는 탄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비하면 너무도 거 리가 멀다는 자책감으로 모대긴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다.

우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패 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석탄생산조직 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새해전투에 진입하는 성일군 들의 잡도리부터가 달라졌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에 새겨안고 사무실의 책상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속에 내려가 탄부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증산

의 방도를 찾아나가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십명의 성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그달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이 어려있는 2.8직동청

년탄광에 달려나갔다. 을 취하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한개 갱씩 담당하고 내려가 탄부들의 심장 마다에 투쟁열기를 북돋아주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는 탄부들과 탄차도 같이 밀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격정을 터놓으며 나라의 맏아들된 도리를 다하자고 고 무격려해주었다.

탄광에 내려간 성일군들은 현지일군들과도 자리를 같이하 고 지난해 생산지휘에서의 경험 과 교훈을 분석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더 좋은 생산성과를 마련하여 어머니당에 로력적선 물을 드릴 의지를 가다듬었다.

성참모부에서는 탄광들에서 당정책의 요구대로 굴진을 확고 히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늘이도 록 하는 한편 서부지구와 북부 지구 주요탄광들의 새 구역, 새 갱개발에 력량을 집중하고 섬멸 전을 들이대여 가까운 몇달동안 에 100만t의 석탄을 확보할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2.8직동청년탄 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제 남탄광을 비롯한 굴지의 탄광들 에서 운반능력을 부쩍 높이기 위한 통이 큰 전투를 계속 힘있 게 내밀어 이 탄광들에서 새로 운 석탄과 버럭운반용벨트콘베 아수송선과 삭도공사를 하루빨 리 완공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 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 게 밀고나가기 위한 성일군들의 사업측면 또한 혁신적이다.

지난 시기 설비, 자재보장이 따라서야 증산할수 있다던 낡은 사상관점을 뿌리빼고 과학기술 전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일군들의 확고한 립장이다

지난해에 성에서는 과학연구

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각 탄광들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는 석탄선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커 다란 전진을 가져왔다.성적으 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선탄 기술을 도입한 단위들에서 석탄 속에 섞여있는 버럭이 거의나 없어지고 회분함량을 종전에 비 하여 2% 낮추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2%라는 수자는 결코 적은 량이 아니다. 그만큼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는 질좋은 석탄을 보내 주게 되고 그로 하여 얻어지는 경제적효과성은 실로 대단하 다. 성의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해 수십개 탄광들에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면 강동지구를

1 합성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들도 비료생산의 심장부를 지켜

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대형설

수리공들이 압축기에 대한 수리

를 깐지게 하고 점검보수를 알

심있게 하여 암모니아생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

는 승리의 진군로따라 힘찬 보

폭을 내짚은 흥남로동계급의 애

국심의 높이인양 출하장에는 비

료산이 치솟고있다.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비롯한 다른 탄광들에로 범위를 확대하여 온 나라 탄팡들에서 보다 질좋은 석탄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탄광들에서 표준화된 계량계 측계통을 완비하고 경영관리의 정보화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확신성있게 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 탄광기계공장들의 부속품가공설비들을 CNC화하 고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 판성식적재이적기를 비롯한 탄 광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 문 및 협동생산조직도 구체적조 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있다.

새해의 드높은 결의를 안고 떨쳐나선 성일군들의 열의에 뗘 받들려 각지 탄광들에서는 석탄 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성일군들 의 새해 2015년의 첫 진군 은 이렇게 개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 는 애로와 난판을 용감히 뚫고 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탄 광들에 대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 천

## 동해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

경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수 산부 분 에 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불고기대 풍을 마련하여 인민들 의 식탁우에 바다향기 가 풍기게 하여야 합 LICH. »

조국의 바다가 들끓 는다.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농산과 축산,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 의 먹는 문제를 해결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바 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

다 백두의 혁명정신으 로 최후승리를 앞당기 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자!》라는 전투적구호에 결사 옹위, 결사관철의 높뛰는 심장

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

이 떨쳐나섰다. 《모두

으로 화답해나선 이들의 기상은 하늘가에 닿았다. 수산성과 동해지구의 각 도수 산관리국의 일군들이 배낭을 메

고 새해전투에 진입한 들끓는

포구들에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바람세찬 포구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수산부문을 인민들 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3대축의 하나로 내세운 신년사의 사상과 진수를 뼈에 새기고 올해에 기 어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자고 하면서 드세찬 공격전의 1선참

북변의 해안가들에 위치한 포 구들에서 현실태에 기초한 정확 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군들을 볼수 있으며 바람세찬 동해의 날바다우에서는 탐색선과 고기 배들을 타고 어로공들과 먼바다 에서 그물도 당기고 어황상태를 현지에서 확인하며 기동적인 어 로전투를 지휘하는 일군들도 볼 수 있다.

호를 차지하였다.

물불을 가리랴,당의 부름에 !

돌격침로를 따라 맹렬히 공격 하는 전투함선들마냥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단 고기배들이 런속 어장에로 진출하고있다. 먼저 먼바다어장을 차지한 신포 원양수산련합기업소아래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 들이 지금 날바다와 싸우며 치 렬한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고 있다.

당정책옹위전에 나선 어로공 들은 침식을 미루어가며 여러가 지 정황에 대처한 어로방법을 들이대여 물고기잡이실적을 높 이고있다. 불리한 바다날씨조건 에서도 그들은 순간도 작업을

물결은 3 m, 바람은 초당 1 0m이상 계속된다. 고기배들 을 삼켜버릴듯 산같은 파도가 덮쳐드는 속에서도 어로공들의 비장한 각오가 비낀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물으로 연방 날아 들고있다.

《맡겨진 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겠다. 》, 《안심하라. 우리 는 귀항할수 없다. 》…

이런 불같은 열의속에 물고기 잡이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물 고기떼가 나타나는 즉시 집중적 인 어로전투에 진입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다.

하다면 결사의 각오를 안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열정이다.

그 불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조국의 바다는 지금 이 시각도 세차게 끓고있다.

오늘날 물고기잡이실적은 단 순한 생산수자가 아니다. 당정 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가 그 렇지 못한가를 명백히 가르는 시금석이다.

동해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 로굥들은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새해진군의 첫 보폭을 힘 차게 내짚었다.

본사기자 전성삼

## 비료산을 높이 쌓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격동의 불이 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장엄한 투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목표도 뚜렷하고 신심도 확고 하다. 농업전선과 피줄처럼 이 어진 여기 흥남의 격전장에서는 비료증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 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 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 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 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이께서 하라고 하시는대로만 하면 만복이 온다는 귀중한 샛 활의 진리를 심장에 깊이 새기 며 지난해 시비년도비료생산계 획을 기어이 완수하여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였던 흥남의 로동계급!

바로 그들이다. 백두의 칼바 람을 안은 크나큰 심장들이 죽 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혁명신 념을 비료산에 새겨가고있다.

2015년의 첫아침 천만군 민을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 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에 넘치신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다시금 비상한 결의를 가다듬은 흥남의 미더운

생산의 첫 공정인 원료공정 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원료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는 념 려말라. 이것은 원료직장 로동자들의 심장에서 고동치고있는 하나의

비료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자.

지향이며 숨결이다. 새해 첫날부터 원료직장 로동

계급의 잡도리는 만만치 않았 다. 교대에 관계없이 달려나온 운전공들이 일제히 운전대를 잡 서로서로 마음을 합쳐가며 원

료들의 분석결과를 놓고 여러 무지의 원료들을 능란하게 배합 해나간 천정기중기운전공들, 교 경애하는 원수님만 따르고 대와 교대 호상간련계를 잘 가 지고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있는 설비.있는 로력으로 모든 공정 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저탄작업반, 분탄작업 반의 로동자들…

어느 하루의 세부가 아니다. 이들이 또다시 달려나갈 365 일이고 그 순간순간마다에 찍혀 질 위훈의 자욱이다.

새해 첫날 원료직장의 그 어 느 전투장에서나 울려퍼지는 혁 신의 동음은 가스화공정의 숨결 로 이어졌다.

5년전 기업소를 찾아오시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 공정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특 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가스발생로직장의 로동계급은

어버이장군님앞에서 하루하루 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비료 의 실적을 총화받는 심정으로 생산에 이바지하였다. 과감한 증산돌격전을 벌려 가스

조하였다. 모든 공정마다에서 설비관 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있다. 특히 압축기수리작업반의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

생산량을 더 늘이는 혁신을 창

한 된바람이 일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작 전과 지휘, 조직지도에서 근본 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혁신적 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당, 행 정, 기술일군들이 깊은 사색과 탐구로 타산을 면밀히 하고 옳 은 방법론을 세워 기술발전사업

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모든 공정마다에서 기대곳들 이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과학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2 합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은 첫 전투가 시작된 날,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압축 기가동률을 지난 시기에 비해 비할바없이 높이였으며 청정 직장, 2질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운 작업방법 을 적극 받아들여 암모니아생 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

물전해공정에서도 새해벽두부 터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기술을 틀어쥐고 기술혁신의 열풍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 게 열어제끼고있는 물전해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나라의 긴 장한 전력보장조건에서도 가성 소다농도를 낮출수 있는 새 기

여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증산의 열기로 끓어번지는

허 천 갱 목생 산 사 업 소 상농작업소 갱목생산전투

장이다. 석탄전선에 더 많은 갱목을

보내주자. 남먼저 10월의 하늘가에 승 리의 포성을 울리자.

격동의 웨침이 천연수림을 뒤 흔들고 산등성이에서는 붉은기 가 세차게 펄럭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 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

010 0,000

본사기자 습니다. 》

#### 넘치는 결사관철의 허천갱목생산사업소 상농작업소에서

여기저기서 울리는 기계톱소 리와 갱목나르기에 여념이 없는

어울려 산판을 들었다놓는다. 《또 한대 넘어간다.》 창공을 치뚫으며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우직우직 소리를 내며

륜전기재의 세찬 동음이 한데

연해연방 나자빠진다. 한손에 기계톱을 쥐고 두볼로 흘러내리는 땀을 팔뚝으로 씻으 며 갱목생산전투를 지휘하고있 는 소장 김병결동무와 산판을 오가며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 게 벌리는 초급당비서 리영수동

무의 모습도 보인다. 격동된 심정으로 잠시도 일손 을 놓지 않는 나무베기공들과 업로동계급의 사기는 하늘을 찌

이신작칙하며 나무베기를 박력 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모습 은 볼수록 우리의 감동을 자아 낸다.

한쪽에서는 아지따기공들이

순간이라도 지체될세라 날렵한 동작으로 도끼밥을 사방으로 날려보내며 넘어진 나무를 미 끈하게 다듬는다. 그에 호흡을 맞추면서 사이나르기공들도 나 무들을 재빨리 한곳에 모아놓 는다.

통쏘이길을 따라 갱목들이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볼

수록 장쾌한 광경이다. 《새해전투에 진입한 우리 림 를듯 높습니다. 올해 갱목생산계획도 문 제없습니다.》

소대장 안승렬동 무의 신심넘친 목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에 서리치기를 끝낸 나무베기공 동웅선, 리철복동무들이 또다시 기계톱을 나무밑둥에 들이댄 다. 밀대공들이 기울어지기 시 작한 나무들을 장대로 밀어제낀 다. 잠간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우지끈, 쾅一》하는 소리와

리이다.

함께 거목들이 연방 자빠진다. 1 0월의 대축전장에 선참으 로 달려갈 심정으로 어려운 산 지운행길을 밤낮없이 달리고도 성차 안하는 리길운, 강성일동 무들이 높이 쌓인 갱목무지들을 단숨에 헐어내려는듯 현속 차를

들이댔다. 이곳 갱목생산자들의 피끓는 심장의 웨침인양 전투속보판에 《격동의 하루》,《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 으로 하루계획 150% 완 수》라는 힘있는 글발들이 나

불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판의 열띤 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룬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산중의 초소를 지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림업로동계급이 있기에 년초부 터 수천척지하막장들의 전진속 도도 비상히 빨라지고있는것

그렇다. 갱목생산의 하루하루 는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남면 저 달려가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불타는 의지로 끝없이 이어지는 위훈의 나날들이다.

본사기자 정경철

## 많은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이 4일 황해제 철련합기업소에 많은 파철을 보 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황철의 로

동계급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나 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차 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일군들 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파철수집사업 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었다.

사리원시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파철수집사업을 힘 있게 벌렸다. 시에서는 대중자신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 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 장들에 파철수집계획을 정확히 주고 총화사업을 따라세웠다. 그 리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1의 파철 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은 온 도가 황철을 돕자고 뛰고 있는데 주인이 앞장서는것은 응 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파철수집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일군들부 터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 범을 보이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 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 으켜 많은 파철을 마련하였다.

이 주인이 되여 이 사업에 적극

송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에서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떨쳐나 많은 파철을 수집하였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급단위들에

서도 황철로동계급을 돕는 심정

으로 많은 파철을 마련하였다. 4일 수백의 파철을 실은 수십 대의 화물자동차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강 철생산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 급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련 합기업소에 도착하였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강철증산 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 평 양 조 차 장 역 에 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신년사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 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 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 다. 이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면 물절약형농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는 레년에 없는 왕가물속에서도 과학적인 영농방법,영농기술을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농업생산에서 전 진을 가져왔다.

물절약형농법은 한마디로 물 을 절약하면서 높고 안전한 소 출을 내는 농사방법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농작물의 생육과 소 출에 필요한 물소비량을 최소한 줄이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 적으로 높이는 농법이다.

물절약형농법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저수지와 물길에서 물 손실량을 줄이는 기술, 농작물 의 생육과 소출에 필요한 물소 비량을 최소한 줄이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안전하게 높이는 영농 기술, 물공급과 소비에서 물을 절약하는 기술들로 구성되여있 다. 이런 의미에서 물절약형농 법은 개별적인 영농기술이 아니 라 관개시설건설 및 관리와 영 농기술, 물관리의 종합적인 기

최근년간 지구온난화의 영향 으로 가물현상이 자주 나타나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십년전부 터 종합적인 물절약형농업체계 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해오고있으며 이 과정에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물절약형농법들 을 개발도입하여 적은 물을 가지고도 농업생산을 늘이고

있다. 는 방향에서 연구사업이 심화되 고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논벼뿌리 부위의 토양습도가 포화습도의 80%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물대기와 물말리기를 자주 반복 하면서 토양을 일정한 정도로 말리워도 수확고가 감소되지 않 는다고 한다. 물대기와 물말리 기를 반복하면 질소와 린의 흡수리용률이 높아지고 카리흡 수량이 적어진다는것이 밝혀졌 다. 이에 따라 질소비료와 린, 카리비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료주기기술들이 확립되고

여기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 제들이 있다. 가을철깊이갈이를 률을 높여준다고 한다. 물기흡

토양습도를 보장하는것, 가을철

많은 불동을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술체계라고 말할수 있다.

우선 논벼농사를 밭농사화하

다음으로 발농사에서 물절약 형농법들이 도입되고있다.

비,겨울철눈을 리용하여 봄가물을 극복하는

것, 토양피복제를 리용하여 수 분증발을 억제하고 토양온도를 높이며 토양습도를 유지하는 것, 비료주는 량을 늘이고 유기 질비료와 무기질비료를 결합하 는것, 가물저항성작물 및 품종 을 심고 재배구조를 조절하는것 등이다.

이미 건설된 판개시설들을 현 대화하고 물관리를 정량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비물을 수집하여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천수답농사에서는

물 1 000m³당 알굑 1t을 생

산하는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것

은 강수량 100mm당 1t의 알

곡을 생산한다는것을 말한다. 물절약형농법에 기술제품들 이 개발도입되고있다. 물절약 기술제품들은 물기흡수제,증 산억제제, 토양흡착제로 나누 고있다.

물기흡수제는 pH가 6~8정도 되는 가루 또는 알갱이물질로서 자체질량의 300~1 000배 에 해당한 물을 흡수한다. 이것 을 리용하면 물흡수량을 늘이고 오래 유지할뿐아니라 비료와 농 약의 효과를 높이고 토양의 침 식을 막으며 농작물의 물리용효

수제는 종자와 섞는 방법, 종자 를 속에 넣고 겉에 물기흡수제 와 화학비료, 농약, 기타 기능성 물질들로 덩어리를 만드는 방 법, 뿌리에 피복하는 방법, 토양 에 직접 리용하는 방법, 종자를 뿌리는 재배기질에 섞는 방법으

로 리용한다. 증산억제제는 식물잎에서 물기날기를 억제하는 기술제품 이다.

2 0세기초에 종자겉면을 파 라핀으로 피복하여 물기날기를 억제하였으며 그 이후에 폴리에 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리용하 였다고 한다. 증산억제제는 식 물의 물기날기와 빛합성을 다같 이 억제하는데 그 비률이 빛합 성억제비률보다 강하므로 식물 의 물리용효률을 높여준다.물 기날기의 억제방법에는 식물잎 에서 숨구멍의 여닫기를 조절하 는 방법과 고분자물질로 식물잎 에 막을 씌우는 방법, 태양빛을 반사하는 발광막을 형성하는 방

법이 있다. 후민산염의 물기흡수, 물기날 기억제작용이 주목되고있다. 후 민산염은 토양구조를 개선하고 물흡수량을 늘여 토지를 보호한 다. 이것을 작물잎에 분무해주면 성장을 촉진시키는것은 물론 뿌 리의 물흡수능력을 강화시킨 다. 또한 효소활성을 증가시키고 생리적조절기능과 작물의 가물 저항성을 개선시킨다고 한다.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 자들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물 절약형농법도입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선 물원천을 최 대로 확보하고 저수지와 물길에 서 물손실량을 낮추기 위한 사 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눈 녹은 물과 비물을 잡기 위한 대 책, 불비한 수문들을 수리정비 하고 물이 새는 물길들을 조사 하여 진흙다짐, 뚝보강 등 필요 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물절약영농기술들 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논농사에서 가물저항성품종 을 골라심는것과 함께 마른써 레, 발상태모기르기, 벼모판종 합영양제, 포화수식 또는 간단 물대기, 소식재배, 잎분무기술 등 물절약영농기술들을 공정별 로 실속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밭농사에서도 이른봄얕은갈이, 강냉이종자피복제, 영양알단지 재배, 겹재배방법, 잎분무기술

을 도입하여야 한다. 앞으로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 서는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물절약형농법에 대한 연 구사업을 진행하며 하루빨리 우 리 실정에 맞게 개발도입하기 위 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혹심한 가물피해가 계속되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 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

두어들일수 있는 담보가 있다. 농업성 국장 리용구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친다

## 1만여t증수를 담보하는 영양단지모도입작전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안악군 일 군들이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1만여t 의 알곡을 더 생산할 목표를 세 웠다. 주목되는것은 100%의 논에 물절약형의 영양단지모재배 방법을 받아들일 목표를 제기하 고 빈틈없는 작전을 펼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분에서 불절약형농 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 극 받아들이고 영농불자를 원 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 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 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 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 업을 받아안은 군일군들은 한자 리에 모여앉았다. 군책임일군이

먼저 자기의 결심을 말하였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나도 결 심을 내릴수 없었습니다. 그런 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올해에 100%의 논 에 영양단지모를 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도 대담하 게 모든 논에 영양단지모를 내 자고 하자 군협동농장경영위원 회 기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

지난해 경지협동농장에서 농 사조건이 불리한 일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를 키워내기로 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농장원들 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농장일군들은 지난 기간 영양단 지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농장 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부식

토, 흙보사비료, 벼모판종합영 양제 등 모판재료비률을 실정에 맞게 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먼저 모판자리에 차단재 료를 뿌리고 부식토와 흙보산비 료, 흙 등을 이겨 깔았다.

그런데 씨뿌리기가 문제였 다. 모판 하나에는 근 2만개의 영양단지가 있는데 단지들마다 씨앗을 2~3알씩 놓자면 많은 품을 들여야 하기때문이였다. 이때 농장의 한 일군이 배천군 의 농장들에서는 3cm간격으로 직경이 8 mm, 9 mm의 구멍을 낸 비닐박막을 리용한다고 하면 서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씨뿌 리기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합리 적인 방법이였다. 일군들과 기 술자들은 그 방법대로 씨를 뿌 리고 로라를 굴리였다. 이렇게 하니 비닐박막구멍마다 씨앗이 2~3알씩 배기였다.그들은

에

방비로 구멍들에 배기지 않은 벼알을 쓸어낸 다음 비닐박막을 벗기고 소농기구를 리용하여 규 격대로 잘랐다. 3 0 여일후 그 들은 포전마다 평당 포기수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소식재배방 법으로 모내기를 하였다.

가을의 결실은 사람들을 놀라 게 하였다. 가물이 지속되였지 만 다른 포전보다 정보당 수확 고가 평균 500~700kg, 최고 1.2t 더 높았다. 따져보 니 영양단지모를 키워낸 포전에 서는 모살이기간이 없다싶이 하 여 뿌리수가 많아진것은 물론 깊이 내렸기때문에 가물이 극복 되였던것이다.

이 농장의 일부 포전들의 논 벼수확고가 류달리 높은 비결의 하나가 영양단지모를 키워낸데 있다는것을 알게 된 군일군들은 올해에는 대담하게 모든 농장들 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 자고 하였다.

이때 군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이 있다. 그것은 논두벌 농사면적에도 뒤그루영양단지 모를 키워내기로 한것이다.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에도 논뒤그루까지 영양단지모를 키 워낼수 없다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군은 큰모를 키 워내는 원리와 비슷하지만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무 엇인가 깊이 생각하던 경영위원 장이 논뒤그루도 영양단지모를 키워내면 얼마든지 정보당 수확 고를 높일수 있다, 이때 평당 평 균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지대

모를 크게 키워내야 하므로 포 전마다 모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100% 의 논면적에 영양단지모를 키워 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때 군일군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모든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양단지모재배방 법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 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든 것이다.

모든 농장, 작업반들에서 온 실을 리용하여 작업반기술원들 부터 영양단지모판을 만들고 씨 를 뿌리는 기술전습을 하도록 한 사실이 그 실례의 하나이다.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고 작

업반기술원들에게 갑자기 이 농 사방법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모 든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는것 은 자명한 일이다. 이로부터 현 지에 나간 군일군들은 작업반기 술원들에게 영양단지모재배방법 을 받아들이면 바람막이바자와 나래. 활창대 등이 필요없고 비 닐박막도 적게 들지만 지금부터 제손으로 영양단지모판을 만들 고 씨를 뿌려보아야 한다고 하 면서 온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 자고 하였다. 그후 작업반기술원 들이 영양단지모도입문제에 힘 을 넣자 농장원들도 신심을 가 지고 떨쳐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군의 현실은 일군들이 패 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갈 때 알곡생산 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된 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성과를 거두고있다. 주 목되는것은 강하천의 표 고차이를 타산한데 기초 하여 보를 막아 올해 자 연흐름식으로 수백정보 의 논에 물이 흘러들게 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물확보사업에 힘을 넣어

Ot

《논농사는 곧 불농 사입니다. » 이 군의 물확보작전에 서 특징적인것은 전탄강 과 룡담천의 표고차이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

초하여 보를 막아 물을

농사에 효과적으로 리용 할수 있는 전망을 마련 한것이다. 군일군들이 이 작전을 펼친데는 사연이 있다. 문천시 갈골령에서부 터 시작된 전탄강일대에

는 농경지가 얼마 없다. 하지만 룡담천주변에는 수백정보의 농경지가 있 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일대의 농장들에서는 지 난 기간 룡담천에 보를 막고 그 물로 농사를 지 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 정이 달랐다. 왕가물로 하여 물이 거의 마르다싶이 하였

다. 결과 농사에 많은 품 을 들이였지만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룡담천에 물이 없으면 이 일

일반적으로 비석에는 규소.

마그네시움, 카리와 함께 여러

가지 미량원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뿐만아니라 영양성분

을 흡착하는 능력이 강한것으로

알려져있는 비석을 비료와 함께

천내군 일군들과 근로 대의 로운, 대양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이로 부터 군일군들은 앞으로 눈석이 물이 생기면서부터 이 하천에도

> 물이 흐를것을 타산하고 한방울 의 물도 허실되지 않게 보를 보 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무 리 생각해보아도 그 물만으로는 수백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댈수 없었다. 현실은 당의 의도 대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

무슨 일이나 하자고 결심하고 달 라붙으면 방도가 서기마련이다.

올해농사에 쓸 물확보문제를 놓고 현지를 돌아보던 군협동농 장경영위원회일군은 룡담천이 전탄강보다 자연지리적으로 1.5m정도 낮은데 주의를 돌 리였다.

(전탄강물을 룡담천으로 흘러 들게 하면 그 물을 농사에 쓸수 있지 않겠는가?)

피뜩 이런 생각이 든 그는 일 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전탄강에 보를 막고 룡담천까지 물길을 내면 짧은 기간에 수백 정미의 물을 잡을수 있었다. 하 지만 강을 길들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많은 자재와 로력이 있어야 하는것은 물론 장마철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경우 이 일대 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 도록 해야 하기때문이였다. 이 로부터 군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긴밀한 런계를 가지면 서 보를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 장되게 막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200여정

그러면 이 광물이 어떻게 되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광물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

버적, 찾아쓰면

여 비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

보의 논에 받아들인 결과 10%

의 알곡을 증수할수 있었다.

이와 함께 무더기비가 내려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 제때에 뽑을수 있게 여러개의 무넘이구 조물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전탄강 에 80여m의 보를 막고 룡담 천까지 물길을 내기 위한 투쟁 이 벌어졌다.

전탄강보막이공사에 펼쳐나 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기술적 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 가면서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갈 때 1.5km의 물길공사를 맡은 근로자들도 기세를 올리였다. 이때 군일군들이 잘 타산한것이 있다. 그것은 룡담천의 물량이 많아지는데 맞게 이 하천의 보 를 1.5m이상 높이도록 한것

농장포전들이 대체로 룡담천 보다 1 m정도 낮기때문에 물을 많이 잡는것만큼 손쉽게 물을 보장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기때 문이였다.

이 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근 로자들은 보를 높이 쌓으면서 장마철에 물량이 많아지면 제때 에 뽑을수 있게 수문공사를 다

그치였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 천의 표고차이를 타산하여 보를 막고 물길공사를 위한 투쟁을 벌린 보람으로 수백정보의 논에 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는 담

보가 마련되였다. 이 군일군들의 경험은 당의 뜻을 끝까지 받들 각오밑에 물 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실천에 옮길 때 올 해농사의 밝은 전망이 마련된다

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박 철

농장에서는 비석을 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먼

### 양 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물을 다루는 농사는 물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새해농사차비문제를 토의하 기 위해 김정숙군 일군들이 모 여앉았을 때였다.시간이 흘렀 지만 해발높이가 근 1 000 m나 되는 석평협동농장벌에 물

럼 나지지 않았다. 사실 지난해에도 군에서는 이 농장의 농사에 기대를 가지고 모 내기때에 많은 로력을 집중하였 다. 하지만 왕가물로 양수기로 퍼 올릴 물마저 없어 정보당 수확고

을 보장할수 있는 방도가 좀처

를 높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농장의 물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는가?그 누 구도 선듯 방도를 내놓지 못하 였다. 그렇다고 논농사를 하던 포전들에 올해부터 강냉이를 심 을수도 없었다.이때 군책임일 군이 물길건설설계도면을 내놓 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당창건 일흔돐을 알곡생산성과 로 빛내이자면 물문제부터 풀어 야 합니다.》

그는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 하였다. 석평협동농장의 어느 한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하 천의 물은 아무리 가물이 심해 도 마르는 일이 없다, 때문에 이 정 숙 에

미 있던 하천의 보를 보강하면 100여정미의 물을 잡을수 있 다, 이런 조건에서 4 0여개의 콩크리트물다리를 건설하여 물 길의 물통과능력을 2배이상 높 인다면 얼마든지 자연흐름식으 로 포전에 물을 댈수 있다, 따라 서 양수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고

10월의 대축전장에 승리자의 자랑안고 들어설 열의 드높다.

-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에서

하자고 결심하면 앞길이 열리 기마련이다. 자연지리적특성을 잘 타산한 책임일군의 착상은 기발하였다. 그러나 하천의 보 를 보강하고 물길을 확장하는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니였지만 오 래전에 만든 나무물다리들대신 4 0 여개의 콩크리트물다리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였다.

일군들이 수백t의 모래와 자 갈, 세멘트를 어떻게 산으로 져 올리겠는가고 걱정하자 군책임 일군이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서면 대중이 따라서기마련입니다.》 그후 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 하고 작전하였다. 깊은 산골짜기 들에 있는 나무물다리를 없애고 4 0여개의 콩크리트물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공사는 힘겨운 일이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남면 저 질통이 넘쳐나게 모래와 자

군

본사기자 찍음

갈, 세멘트를 지고 산으로 올랐 다. 군안의 근로자들이 일군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골짜기를 가로 지른 나무물다리들을 없애고 콩 크리트물다리를 건설하자니 여 간만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공사를 맡은 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기술적 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 나 풀어나갔다.

이렇게 그들은 나무물다리들 을 없애고 하나의 크기가 길이

3 0~5 0m, 너 비 70cm, 높이 크리트물다리들 을 건설하여 이 농장의 물보장 을 위한 돌파구 를 열어놓았다. 보보강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길 이가 수십m 되 는 보를 1 m이 상 높이면서 장 마철에 물이 급

격히 불어나는

경우 제때에 뽑

을수 있게 수문

곳사를 다그쳤

다. 6 000여m

의 물길확장공사를 담당한 근로 자들도 일자리를 푹푹 내였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그들은

8 0 여정보의 논파 밭에 물을 넉넉히 댈수 있는 담보를 마련 하였다. 결과 이미 있던 양수기 가 더는 필요없게 되였을뿐아니 라 그 어떤 왕가물이 계속되여 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 게 되였다.

이들처럼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 각오가 높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지 않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불의 특성과 생육단 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

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쓰면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를 받들고 농사차비 로 끓고있는 은파군 류정협동농장에 가 ' 면 이런 말을 듣게 '

묻혀있으면 버럭, 찾아쓰면 고 한다. 보물이다.

비석이라는 광물을 리용하면 비

류정협동농장에서 은 파군 이 영양성분을 잡아두고있다가 농장주변에는 바로 이 광물이

농장주변에 많이 묻혀있는 적지 않게 매장되여있다. 하지 만 지난 기간에는 사람들의 눈 본사기자 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기때문 밖에 나있었고 버럭처럼 취급되

였다. 농장일 군들은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 회일군들 과의 긴밀 한 련계밑 에 이 광 물을 분석 해보던 과 정에 농사 에 리용하 면 아주 좋은 효과 를 볼수 있다는것

일정한 량씩 내보내기때문에 비 료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고 임반적으로 포전에 비료를 치 면 그 효과가 한주일정도 지속

되는데 농작물에 흡수되는것과 뉴실되는 량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비료의 허실을 막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비료주 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품이 적지 않게 들 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경영 위원회일군들의 방조밑에 주변 에 흔한 비석을 리용하여 비료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일군들은 이 광물을 리용 하였을 때 비료효과의 지속기일 을 20일정도 보장할수 있다고

느꼈다.

말하고있다.이 정도면 같은 량 의 비료를 가지고도 몇배의 효 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저 비석을 캐서 일정한 정도로 무 져놓고 물을 부었다. 이틀정도 지 나면 덩어리로 되여있던 비석이 풀리는데 이것을 수분이 60% 정도 되게 말리웠다. 다음 채를 리용하여 보드라운것만을 갈라 물

내서 뇨소와 1:1비 률로 섞었다.그리고 1 5~2 5℃ 되게 온 도를 보장하면서 하루 동안 무져놓았다.

이것을 포화수식물대기를 한 논에 뿌려주었다. 비료를 비석과 섞어쓰니 여러모로 좋았다. 우선 비료성분이 종전보다 토양속에 남아있는 기일이 길어졌기때문 에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 을 지어줄수 있었다. 특히 벼잎

다 10% 더 높일수 있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난 해농사총화를 하면서 이곳 일군 들은 자기 고장의 흔한것도 문 혀있으면 버럭이고 찾아쓰면 보 물로 된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색의 변화를 막을수 있었다. 곁

과 정보당 논벼수확고를 종전보

농장일군들은 올해에는 모든 면적에 이것을 받아들일 높은 목 표를 내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들었다. 결과 작업반들 에서는 비석을 확보하는 사업을 농사차비에서 중요한 문제로 틀 어쥐고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통일애국투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 서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려가 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 향장기수 고광인동지가 여든번 째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앞당 기기 위한 천만군민의 총공격전 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5일 그에게 은정어 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에는 수십년세월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만 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적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고 공

대사와 대사관성원이 5일 평양

손님들은 녀성들과 후대들을

류히 꾸려진 산원의 여러곳을 돌

꾸바혁명승리

56돐에 즈음하

여 헤르만 에르

민 페라스 알바

산원을 참판하였다.

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고광인동 지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믿음 이 담겨져있다.

고광인동지는 준엄한 조국해 방전쟁시기 인민유격대에 입대 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 였으나 30여년간 옥중에서 혁 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 굴함없

이 싸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 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 진 시계표창과 공화국영웅칭호,

원

평양산원에는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

있다. 녀성들이 무료로 해산하

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참모습

꾸 바 대 사 관

조국통일상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 표창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였으며 언제나 그의 생 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고광인동지와 가족, 친척들,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당의 선군혁명령 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헌신 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이 올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 하기 바란다. 손님들은 산원에 기념품을 남

기였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

【조선중앙통신】

아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밝은 미

래를 확신할수

학습한데 기초하여 화선식정치사 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며칠전 회창군 석황로동자구 3 0 인민반 최경옥동무의 가정 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빛이 꺼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 하여 나누는 이야기가 언제 가 도 끝날것 같지 않았다.

옥동무의 남편인 장세현동무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위 대 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 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 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전국의 원군미풍열성자들에 대 한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세 차게 울려주었다. 자기들도 선 군의 덕을 입을줄만 아는 사람 들이 아니라 선군을 위해 애국 의 한마음을 다 바치는 뗫뗫한 었다. 사람들이 되고싶었다.

최경옥동무의 집에는 덩지큰 돼지우리가 생겨났다. 많은 돼 지들을 기르느라 최경옥동무는 늘 바쁜 시간을 보내였다. 낮에 는 직장일을 하고 밤이면 먹이 를 가공하고 돼지우리들을 손질

어느날 직장에서 돌아오자바 람에 돼지우리를 들여다보던 최 경옥동무는 가슴이 선뜩했다. 여느때같으면 먹이를 달라고 졸 라대던 돼지들이 바닥에 기척없 이 쓰러져있었던것이다. 전염병 에 걸린것이 분명했다. 돼지들 을 살려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 던 최경옥동무는 그 자리에 맥 없이 주저앉았다. 이제 더는 살 려낼 방법이 없었다. 소식을 듣 고 달려왔던 어머니가 돼지를 기르느라 험해진 최경옥동무의 손등을 쓸어보며 저력있는 어조 로 말했다.

회 창 군 석 황 로 동 자 구 3 0 인 민 반 최 경 옥 가 정 서 기르던 돼지들을 가져왔다.

> 수십마리의 돼지와 많은 원호 물자를 안고 최경옥동무와 가족 들이 어느 한 건설장에 찾아갔 을 때 군인건설자들은 고향의 친부모형제처럼 반갑게 맞아주

최경옥동무는 마음속신들메 를 더 굳게 조여맸다. 돼지마리 수도 더 늘이고 여러가지 집짐

출장을 갔다가도 군인들의 군 무생활에 필요되는것이라고 생 각되면 밤길을 걷는 한이 있어 도 무조건 구해오는것이 어느덧 장세현, 최경옥동무들의 습관처 럼 굳어졌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고결한 애국의 리정표는 언제나 병사들의 힘찬 군가소리 가 메아리치는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들을 가리키고

러운 소리가 고막을 때리였다. 비물에 뭉청 떨어져나간 길을 바라보며 최경옥동무는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억수로 퍼붓 는 비발에도 아랑곳없이 일손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던 장세 현동무가 돌아왔다.이 고장사 람들이 산중턱쪽에 닦은 우회도 로가 있다고 알려주더라는 장세 현동무의 말에 운전사가 머리를 저었다.장마철에 산중턱길에 들어섰다가 아차하는 순간이면 모든것이 끝장이라는것이였다. 비장한 눈길로 산중턱을 바라 보던 장세현동무가 준절히 말

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요.》 그들이 걷는 원군길에는 이런

신념과 의지가 깔려있었다.

잠시후 가파로운 산중턱길로 화물자동차가 한치한치 전진해

당에서는 불타는 충정과 애국 의 열정으로 당을 받들어온 장

바위돌이 탕탕 굴러내리는 아츠 세현동무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안겨주고

> 정이 크면 클수록 장세현, 최경 옥동무들의 가슴속에서는 보답 의 일념이 더욱더 세차게 불타 올랐다.

으로 그들의 원군길은 끝없이 그들은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 자를 안고 들끓는 사회주의협동 벌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갱막장들에도 찾아갔으며 부모 잃은 아이들을 친부모의 정으로 보살펴주었다. 부모가 걷는 애국의 길에 가 정의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한 자식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 군군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 을 기울여온 최경옥동무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사랑과 믿음을 받을줄만 알고 보답할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참된 전사의 자세이라. 이런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 며 그들이 내짚는 인생길의 자 욱자욱은 얼마나 아름답게 수놓

아질것인가. 본사기자 조경철

### 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 으로 된다. 이곳에서 태여나는 실속있게 진행되는 신년사학습

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 전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 고 치료를 받는것은 사회주의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사상 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신년사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

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등을 적극 벌러나가도록 조직정치사 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신년사의 기본내용들을 직관화 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에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 업을 참신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신년사를 깊이

성 원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당원 들과 탄부들은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로 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결의 를 안고 당면한 석탄생산에서

로농통신원 연전행

질줄 몰랐다. 방이 비좁을 정도 로 온 가족이 모여앉아 경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

-대홍단군 창평농장에서

애국헌신의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륭성번영 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게 새해의 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군민의 뜨거운 인사를 선참으로 받으셔 야 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 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셨 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는 최경

그날 최경옥동무와 온 가족은 당의 선군령도를 한마음으로 받 들어 원군길을 힘차게 달려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그리 고 원군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벌려나갈 계획들도 하나하나 세 워나갔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최경옥동무의 가정이 원군길에 나선것은 10여년전부터였다.

《병사들이 기다리겠는데 이렇 게 맥을 놓고 앉아만 있겠니?》 최경옥동무는 자리를 차고 일 어섰다. 친척들과 형제들이 집에

최경옥동무도 집에 저축했던 자

을

되였다.

금으로 돼지들을 마련했다.

알 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일념 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맹렬 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군인건 설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웠던가.

승우리도 만들었다.

있었다.

대줄기같은 비가 그칠새 없이 쏟아져내리던 어느해 장마철이 였다. 원호물자들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자동차가 문득 멈춰 섰다.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산 골물에 길이 끊어졌던것이다.

을 다그치고있을 군인건설자들 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뗘올 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끄러져 내리는 야전차를 밀고 오성산의 벼랑길을 오르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너무도 가슴이 저 려와 눈물을 흘리던 우리들이 아 니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겠소. 원군

대회장들에도 불러주었다. 자기들이 받아안는 사랑과 은

희천발전소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건설 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

0 오

혉

수들의 훈련지도를 보다 과 학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현대 적인 측정기구를 창안도입하 는 성과를 이룩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달리기기록측정기라고 부 르는 이 기구는 선수들의 달 리기기록을 백분의 1초까지

체육단에서 륙상선수들의 훈련에 이 기구를 도입함으 로써 매 선수들에 대한 훈련 지도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선 수들은 이 기구의 자료를 통 ㅂŀ 하여 달림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원리들을 명백하게 인 식할수 있게 되였다. 선수들의 출발순간부터 자 동적으로 동작하게 되여있는 이 기구는 측정값의 정확성 을 높이면서 여러명이 거의 동시에 결승선에 들어서도

원수님의 력사적 인 신년사를 피끓 는 심장마다에 받 아안은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기 술자돌격대원들이 사색과 탐 구의 열정을 끊임없이 분출 시켜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로 가슴 을 불태우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신력을 기본으로 하

는 우리 식 체육경기원칙, 경기방법이 체육과학과 밀접히 결합되여 과학적으 로 튼튼히 안받칩될 때 그 우월성과 위력은 비할바없 이 더 높이 발휘되게 될것 입니다.»

돌격대에 망라된 김일성종합 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 종합대학, 조선체육대학, 한 덕수평양경공업대학, 체육과 학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 과학연구기관들의 일군들과 과학자, 교원, 기술자들은 지난해 줄기차게 벌려온 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

에 힘을 넣어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켜

성천강체육단에서 륙상선

의 정확도로 평가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도입결과가

정확한 도착시간을 측정,게

시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감

독, 선수들속에서 호평을 불

러일으키고있다.

매우 좋다.

《체육부분에서는 체육

같이 교시하시였다.

야 하겠습니다.》

령 도 자

학연구활동과정에 과학과 기술의 시대,정보산업시대 의 요구와 현대체육발전추 세에 맞게 종목별체육기술 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과학 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돌격대원들은 체육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 을 확고히 틀어쥐고 종목별 교수훈련의 과학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 려왔다.

가치있는 성과들을 수많이

이룩하였다.

조마운동동작수행을 력학 적으로 모의할수 있는 프로 그람을 개발하여 선수들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

또한 돌격대원들은 창조적 지혜와 힘을 모아 활쏘기교 수훈련지원체계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선수들의 기술동작 들과 함께 명중률에 영향을

이 측정기구는 륙상종목뿐

아니라 구기, 중경기 그리고

다른 경경기종목들에서도 선

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의 과

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좋은

이러한 성과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체육의 과학화방침을 비약

의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

고 이악하게 일판을 벌린

체육단일군들과 감독,연구

사들의 불같은 열정의 산물

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

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정치사

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한개 종목씩 맡아

교수훈련지도의 과

학화수준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

를 적극적으로 풀어

주도록 하는 분공조

이러한 분위기속

에서 주에 여러차레

진행되군 하는 기술

협의회때마다 감독,

연구사들은 물론 일

군들도 주인다운 립

장에서 자기가 맡은

종목의 훈련과 경기

과정을 주시하며 찾

아낸 문제점들도 제

기하면서 그 해결대

직도 따라세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체육단에서는 체육의 과학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측정

세

파견된 2월17일파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훈 련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적

기술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극 이바지하였으며 마라손, 레스링 등 여러 종목들의 교 수훈련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심도있게 진행하 여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

돌격대원들은 동영상에 의한 력기선수들의 기술분 석프로그람과 매 선수들의 부위별육체발달수준에 따 라 경기기록을 예견할수 있 는 프로그람, 종목별선수들 의 운동능력을 예측할수 있 는 프로그람을 연구개발하 여 력기기술발전과 종목별 선수들의 훈련에 도움을 주

체육종목별특성과 우리 나 라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기술훈련, 전술훈련을 과학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

책을 세우기 위한 토의에 열

정적으로 달라불군 하였다.

륙상은 물론 다른 종목의 훈

련에서도 리용가치가 큰 현대

적인 달리기기록측정기를 한

시바삐 만들어야겠다는 결론

도 그러한 과정에 얻어진것이

기구제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무엇이 불가

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

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떨

쳐나선 체육단일군들과 감

독, 연구사들의 신심과 열의

는 날로 높아갔다. 걸린 문제

들을 도맡아 제때에 풀어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군

들의 적극적인 방조와 온 집

단의 큰 믿음과 기대속에 제

적인 우리 식의 훈련방법, 훈 전된 나라들만이 만든다고 련의 강도와 밀도를 최대한 으로 높이기 위한 훈련방법 들을 연구도입하는 사업에서 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세계축구발 전추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데 기초하여 축구교수훈 런지원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기술,전술체 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기 여하였다.

또한 여러 종목별교수훈 련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지 난해 제17차 아시아경기대 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서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성 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기 여하였다.

성과는 과학적인 훈련기재 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 업에서도 이룩되였다.

작성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

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

투를 벌려 마침내 현대적인

달리기기록측정기를 만들어

당정책에 대한 이렇듯 투

철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속에 체육단에서는 달리기

기록측정기뿐아니라 휴대용

눈피로측정기, 등배힘측정

기, 페활량계, 수자식피하지

방측정기재 등도 자체로 창

안제작하는 성과도 이룩할

당의 부름따라 과학기술로

국제경기우승자들을 당당히

키워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고있는 이곳 체육단의

지 혁 철

The same in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수 있었다.

내는데 성공하였다.

창 안 도 입

돌격대원들은 불타는 탐구 의 열정을 바쳐 지난 시기 발

하는 사격전자목표판을 자체 복에 도움을 주었다. 의 힘으로 훌륭히 만들어내 고 목표판과 프로그람을 결

퓓

합시켜 선수들의 심리상태에 따르는 호흡, 맥박 등을 분석 하여 사격훈련에 많은 도움 을 주었으며 조약힘측정장치 와 물에뛰여들기선수들의 보 조훈련기재를 연구제작하여 도입함으로써 선수들의 육체 기술적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체육성아래 해 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체육 종목별에 따르는 경기복 등 을 우리 선수들의 체질적특 성에 맞으면서도 보기에도 좋고 품위있게 설계제작하였 으며 경기복의 국산화를 실 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체육영양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피로회복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돌격대원들

이 개발한 여 러가지 음료들 이 선수들의 훈련과 피로회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 들이 지난해에 제17차 아시 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 회들에서 안아올린 승리의 금메달들에는 과학과 기술 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 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조국 의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는 길에서 밑거름이 되고 뿌리 가 되여 탐구의 나날을 불 같이 이어온 체육성에 파견 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원들의 애국적헌신의 땀방울이 슴배여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 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 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 고있다.

주 령 봉

## 체육분야에서 정보기술의 리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의 시대 인것만큼 체육도 과학화하 여야 체육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급속 히 발전하고있는 정보기술이 체육분야에서도 적극 리용되 면서 종전에 볼수 없었던 최 우수선수의 난도높은 동작세 부나 공의 회전, 운동할 때 선 수의 체내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을 해명할수 있는 과 학적기초를 마련해주고있다.

음과 같다. 경기중에 있는 선수와 공 등의 움직임전체를 계측하여 자료화함으로써 경기분석의

의

그 일부 측면들을 보면 다

질과 공판정의 정확도를 높 이고있다. 전문 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최우수 선수들에게서 는 훈련때와 경 기때의 동작수 행에서 큰 차이 가 있으며 따라 한다. 서 최우수선수 실지경기에 서의 운동능력

을 파악하자면 경기전체를 정 량적으로 계측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영기로 구성된 촬영기재들을 가지고 축구경기에서 선수와 공. 심판의 위치와 매 선수들 의 총 이동거리, 순간질주속 도, 전반과 후반의 운동량차이 와 같은 종전에는 얻을수 없었 던 자료들을 얻어낼수 있는 추 적체계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여러대의 특수촬

어느 한 나라에서도 3차원 영상처리기술을 리용하여 정 구경기장의 여러 각도에서 촬 영한 영상들을 가지고 공의 자리길을 mm단위로 산출해냄 으로써 시속 200km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구공의 선 바깥판정을 높은 정확도로 진 행할수 있는 보조판정체계를

체내조직들의 변화관계를 밝 혀냄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려고 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 연구집단에 서는 휴대용초음파진단장치 와 핵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를 리용하여 선수들의 근육 과 힘줄의 호상작용에 대한 해석연구를 진행하고있다고

정무가들은 앞으로 슈퍼콘 개개의 근육섬유조직이 발휘 과의 호상관계를 밝혀낼수 있으며 어느 근육을 단련시 켜야 동작수행해결에 도움이 있게 될것이라고 한다.

개발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체움직임에 따르는

퓨터의 연산능력을 리용하면 하는 힘과 공에 가해지는 힘 되겠는가도 구체적으로 알수

## 평 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에서

위 대 한 형 도 자 도 중단함이 없이 이 사업을 근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기있게 밀고나갔다. 지난해 봄 도수출입품검사검

혀

지난 몇달동안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온 로성일동무의 성과

자료들을 료해한 일군은 저으

역학통보의 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나서 필요한 대책들

그후 로성일동무는 김책공

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도의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입국자들

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장악할

뿐아니라 그들에 대한 역학적

감시를 신속정확히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였다. 이

굣 검사검역원들인 라학섭, 백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위원회와 중앙위생방역소 등

에 역학통보체계프로그람을

도입함으로써 국경지역을 드

나드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

한 장악과 역학적감시를 철

저히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전파되는 각종 전염병들의

발생을 미리막을수 있게 하

역학통보의 정보화를 실현

하여 통보의 신속성,정확

성, 과학성을 보장한 이들의

성과는 21세기 죽음의 병

으로 알려진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감염증을 미리막기 위

한 위생방역사업에서 큰 은

한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

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생방

역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

이 받들고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

한 보다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본사기자 방경 찬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김윤철, 송정남동무를 비롯

을 내고있다.

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후 이들은 국가품질감독

경일동무들이 로성일동무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었다.

하나 기 감동되였다. 일군은 그날

○ 여러 단위 교원, 연구사들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역소의 한 일군이 그를 찾아왔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위생 다. 비록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 방역사업을 강화하는것입 는 아니지만 인민의 건강증진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니다. 》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 소 책임검사검역원 로성일동 무는 그날도 하루일을 끝내고 나서 부피두툼한 도서를 펼쳐 들었다. 벌써 며칠째 남들이 퇴근한 후에 전공분야가 아닌 도서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들 여다보는 그에게 부서성원들 은 사연을 물었다.

로성일동무는 날이 감에 따라 역학통보의 정보화를 더욱 원만히 실현해야 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제힘 으로 말아 수행할 결심을 피 력하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요. 그러나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오.》

사실 그에게 역학통보의 정보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 업을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것이 수출입물자 들에 대한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로성일동무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이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조류독감을 비롯한 전염병들을 미리막는것이 우 리 인민의 생활을 안정향상시 키는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국경지역에서 일 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로성일동무는 그때부터 남모 르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보냈다. 수많은 물동량들에 대한 수속을 맡아보느라 온종

일 뛰여다니고 밤에는 또 밤 대로 역학통보의 정보화실현 등 에 이바지하게 될 기초자료들을 마련하느라 애써 노력하는 그에 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로성일동무는 자신을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 세워준 당의 은정에 높은 실적 으로 보답할 맹세를 안고 하루

날 에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축복해 주시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 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 전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 인 신년사는 천내리세멘르공장 소성직장 교대장 리영철동부 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생산 현장에 들어섰을 때 공장의 일군 들과 직장장은 물론 교대장들인 김영준, 탁동일동무들도 현장에 서 생산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서로 새해의 인사를 나눌 때 뒤이어 현장으로 들어 본사기자 |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리영철동무의 교대성원들 이였다.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 휴식하 라고 등을 떠미는 직장장 김은 산동무에게 그들은 한결같이 이 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혁신자의 영예안고 10월 의 대축전장에 제일먼저 들어서 자는것이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심정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달려나온 그들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할 결의안고 보람찬 새해 첫 전투의 하루를

이렇게 되여 소로길을 새로

닦기 위한 공사가 농장적인 사

업으로 벌어졌다. 제3작업반의

##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주선으로

해 주 철 도 분 국 당 위 원 회 에 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 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해주철도분국 당위원회에서 분국산하 여러 단위들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직

특히 철도역을 잘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모든 철도 역들과 단위들을 새 세기의 요 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분국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본보기 로 꾸리고 모두가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지난해 하성역사를 개건하고 역구내를 번듯하게 꾸리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가 벌어졌다.

일찌기 하성역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와 역구내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역주 변에 오동나무를 많이 심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분국당위원회에서는 하성역 을 령도업적단위답게 꾸리는 사 업에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 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저저마다 하성역으로 달려온 분국과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역사와 구내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 정의 마음을 바쳤다.

이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혁명사적물주변과 역기다림칸, 사무실 등 역사가 훌륭히 꾸려지고 수백그루의 오 동나무가 심어졌으며 1 700m 의 울타리공사도 진행되였다.

분 국 당 위 원 회 에 서 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해주-하성사이 넓은철 길개통식이 진행되였던 해주청

꾸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조

직전개하였다. 이미 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4 000m²에 달하는 역구내 콩 크리트포장을 진행한 분국에서 는 련이어 높은홈공사와 울타리 쌓기공사, 철길이설 등 방대한 공사에 달라붙었다.

선전선동수단이 총동원되고 책임일군들이 앞장에서 이신작 칙한것으로 하여 공사참가자들 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공사참가자들은 낮과 밤이 따 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 난해 20일동안에 3 200여m² 의 높은홈성토작업과 콩크리트 치기, 수백m의 울타리공사 등 방대한 작업과제를 끝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분국당위원회에서는 거둔 성 과에 만족하지 않고 신주막역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분국산하 여러 단위들을 더 훌 륭히 꾸리고 모든 단위들이 적 극 본받도록 하는 사업을 중단 없이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높여가는 평양체육단 녀자축구선수들 본사기자 찍음 어느 한 나라의 우리는 신양군 인평로동자구 5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호중 로인으로부터 인평협동농장 초급 당위원회 일군들을 소개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곳을 찾았다. 《우리 일군들에 대해 알려거 터놓았다. 든 우선 새로 생긴 소로길 부터 가보아야 합니다.》 농장관리위원회의 한 일

를 그곳으로 이끌었다.별 다. 하지만 거기에 깃든 사연이 뜨거웠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 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 호입니다. »

위 대 한 경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 업입니다. »

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지난해 농장이 자체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

왔다. 그는 자기는 곰취골에서 살고있는데 해마다 장마가 들 면 굠취골로 들어가는 길이 파 괴되여 사람들이 다닐수 없게 되군 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초급당일군은 그길로 농장의

일군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았

다. 개울옆에 난 길이였는데 장

마가 질 때마다 패여져나가 겨

우 한사람이나 통과할수 있는

길 아닌 길이였다. 그날 초급당

비서는 곰취골에 올라가 주민들

도 만나보았다. 6세대가 살고있

었다. 어른과 아이들까지 포함

하여 21명이 다니는 길이였다.

리하느라고 땀도 적지 않게 흘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길을 수

군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 ﻛﯩﯩﯩﯩﯩ ♦ 신양군 인평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 ﯨﯩﯩﯩﯩﯩﯩၖ 로 눈에 띄지 않는 소로길이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

지난해 3월 초급당비서의 방 으로 인평로동자구 59인민반 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이 찾아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 업적이 깃든 칠리농장은 지난해 농사에서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 다. 관리위원장 김판오동무는 좋 은 농사작황의 비결에 대하여 묻

《과학농사야말로 알곡수확고 를 높일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 니다.지난해농사를 통해 모든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과학농사에 대한 견해가 확고해졌습니다.》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훌륭한 작황을 마련할수 있었다고 하면 서 과학농사열풍속에 흘러온 나 날을 즐겁게 추억하였다.

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 에게 보내주신 서한과 당의 농 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장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영농방법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된바 람을 일으켰다. 이를 위해 농장 에서 특별히 힘을 넣은 문제는 패여져나가군 하여 애를 먹는다 고 하였다.

주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그들의 말을 새겨듣는 초급당 일군은 장마철과 눈이 많이 내 릴 때마다 멀리 에돌아다니였을

초급당일군은 관리위원장 원성

철동무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이미 있던 길을 아예 없애버리

고 곰취골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바삐 소로길을 새로

잘 닦아주어야겠다는 결심을 굳

히였다. 이렇게 되여 다음날 현

지에서 소로길을 새로 낼데 대

한 안건으로 긴급협의회가 열리

였다.

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공사 를 하더라도 바쁜 시기나 지난 다음에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 였다.

소로길

비서는 말하였다.

한다는것이 그의 립장이였다.

그날 협의회를 결속하며 초급당

《곰취골에서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면

서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당일군

의 자격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는 그곳에 단 한세대

가 산다고 해도 소로길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주민들의 편의

농업근로자들도 떨쳐나섰다. 초급당비서 리히철, 부비서 리 광철동무들은 남보다 큰 질통 을 지고 이신작칙으로 작 다. 3일후에는 200때의

이렇게 보내였다.

소로길이 새로 생겨나게 되였다. 곰취골에 사는 사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날 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바쁜 람들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때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해야 의 헌신의 땀이 슴배인 소로길 을 손으로 쓸어보며 뜨거운것 을 삼키였다.

산골마을에 새로 생긴 소로길, 비록 크지 않은 길이다. 말그 대로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뜻이 소중히 비껴있는 인민사랑의 큰

길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서 산소흡수문제 등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농업근로자들속에 서 제기되였으며 과학기술적인 워리에 기초한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일군들은 사소한 문제점도 소 홀히 하지 않고 해결방도를 본 인은 물론 다른 작업반과 분조 들에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사업과 강습 등을 자주 조직함 으로써 모기르기 비료주기를 비롯한 많은 영농작업에서 존재 하고있던 지난 시기의 낡은 방 법들과 고질적인 습관들을 결정 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

《옛날에 농사군이 굶어죽어

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과학농법이 종자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재부입니다.》

분출이다.

이것이 농장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진심어린 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과학농사 를 중시하는 이곳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더욱 불 같다. 그것은 올해농사에서도 더 많은 알곡소출을 내는것으로 당을 받들려는 애국의 마음의

본사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 서성구역인민병원에서-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 렸지만 장마가 들면 영낙없이 위해서 공사를 벌려놓는다는것 앞채를 메고 땀을 흘러봅시다.》

일부 일군들은 겨우 6세대를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였다. 지난 시기 경험에만 매달리던 굳어진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농 업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실정 에 맞게 과학기술적인 여러가지 영농방법들을 인식시킨다는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사장 김

영식동무는 기술일군들이 농장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자체의 기술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농업 과학기술지식보급의 전초병으로 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 다. 형식과 틀이 없이, 때와 장소 가 따로 없이 진행된 기술일군들 의 진지한 토론끝에 농업근로자 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알기 쉽게 리해

방법론을 찾을수 있게 되였다. 기술력량을 준비시킨데 기초 하여 일군들은 시기별, 공정별 에 따르는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기술학습과 보여주기사업

시킬수 있는 과학기술지식보급의

을 매 공정이 시작되는 첫날 아 로통과거리를 길게 하여 온도를 침 현장에서 어김없이 진행하도 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면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진행

리

농

칠

된 영농지식보급사업은 처음부 터 효과가 컸다. 원리적으로 알 기 쉽게 진행되는 기술학습은 알곡생산을 높이려는 농업근로 자들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창발 적의견을 제기할수 있는 계기로 되였다. 결과 과학농사를 대하 는 농업근로자들의 태도가 근본 적으로 달라졌다. 누구나가 어 제날에는 볼수 없었던 진취적인 자세로 농사일에 달라붙었다.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별, 필 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자료와 재배하려는 서로 다른 품종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기 위한 농 업근로자들의 의문이 커졌으며 특히는 물관리와 비료주기에서

책임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실례로 물판리공은 일부 논에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낮아 벼 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것을 막 기 위하여 물대기 전날부터 수

올린 다음 논에 대도록 하였다. 비료주기를 맡은 농업근로자들 은 일률적인 비료주기가 아니라 물대기와 빼기의 시간에 따르는 합리적인 물머무름시간을 타산 하여 비료치기를 진행하고 물흐 름의 견지에서 웃부분의 논과

의 책임성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다 높아졌다. 과학농사의 줄기찬 열풍속에

함께 과학기술적인 영농방법에 대한 열의가 나날이 커갔다.

봄씨뿌리기시기부터 가을건 이시기까지만 하여도 종자의 적 지배치문제, 생육기일에 따르는 아지치기문제, 토양갈이에서 깊 이보장문제, 린부족과 관련한 농작물의 뿌리내림문제, 뿌리에

맨 아래부분의 논들에 대한 비 료주기량을 바로 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바쳤다. 뿐만아니라 모 판관리공들과 양수기운전공, 부 림소관리공, 뜨락또르운전수들

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주인인 농 업근로자들의 알굑증산의욕과

##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자주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 과 념원을 더욱 불태워주고있으며 온 민 족을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갈수록 민족분렬 의 비극의 력사를 단호히 끝장내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애국의 의지가 천백배 로 솟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 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렬된 때 로부터 70년이 되였다. 이 기나긴 나날 분렬의 아픔이 겨레의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던가.

조선은 그 이름처럼 아침해 남먼저 솟 아올라 빛나는 아름다운 땅, 노래에도 있 듯이 그림같이 황홀하고 금은보화 가득찬 전설의 땅으로 불리워왔다. 바로 이 땅에 서 우리 겨레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 의 언어를 가지고 반만년의 력사를 줄기 차게 이어왔다. 조선민족은 송죽같은 절 개와 일편단심, 특출한 애국심과 강한 단 결력, 용감무쌍한 기개로 하여 그 이름 더 욱 높았다. 또한 고상하고 순결한 미풍량 속과 문화도덕으로 하여 세상사람들로부 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찬탄을 받아왔다. 이토록 유구한 력사와 단일민족의 전통을 자랑해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70 년째 갈라져 살고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 게 참을수 있고 허용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조국해방 일흔돐이자 민족분 렬 70년이 되는 이해의 첫 기슭에서 우 리 겨레가 느끼는 감정은 류다르다.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나날 우리 겨레가 흘린 피눈 물은 그야말로 대하를 이루었다.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 고 대결에 헛된 힘을 소모하고있는것은 실로 통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 은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통일대강이 없어서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대결과 분렬

의 력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획기적인 일대 사변이 일어났 다. 6. 1 5가 안아온 통일의 뜨거운 열 풍속에 수십년간 영구동토대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분렬과 대결의 얼음장이 녹 아내리고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나라 의 지맥이 다시 이어지는 가슴벅찬 경사 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통일기운이 뜨겁 게 차넘치던 이 강토에 대결의 차디찬 랭기가 들이닥치게 되였다. 북과 남의 화 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 통일세력에 의해 6.15시대가 모독되

남조선에서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도 발과 전쟁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체제대결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 에 이르러 바야흐로 북남관계는 사상 최 악의 긴장국면에 처하였다.

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이 중지되였다.

이 엄혹한 사태를 바로잡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도 중대제 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 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내외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노력 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 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다. 북남관계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 임한다면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은 고

사하고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피할수 없

게 될것이다. 북과 남의 대결로 손해볼 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 은 외세이다. 비록 정세는 복잡하고 장 애와 난판이 가로놓여있어도 우리 민족 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지구상에서 유 일하게 분렬된 강토에서 사는 단일민족 이라는, 세월의 이끼덮인 분렬의 장벽을 기어이 허물고 통일의 새 력사를 창조해 야 한다는 시대의 피타는 절규가 겨레의

심장을 쿵쿵 울리고있다. 북과 남의 대결이냐 화합이냐, 전쟁이 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력사의 분기점에 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가 힘차게 울 려퍼졌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 얼마나 신심에 넘치고 열정과 투지 를 북돋아주는 구호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해주신 이 구호야말로 올해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운동의 필승의 기치이다.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어제도 오늘 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우리 민족끼리 의 길이다. 북남관계문제는 어떤 경우에 도 외세의 전쟁책동의 롱락물이 될수 없 으며 그것을 허용하는것은 민족의 리익 을 팔아먹고 겨레의 평화와 통일념원을 짓밟는 매국반역행위이다. 북과 남, 해외 의 온 겨레는 자주의 리념, 우리 민족끼 리의 리념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의 존엄 과 리익을 견결히 지켜나가야 한다.

애국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 이라면 지속되는 민족분렬을 두고 발편 잠을 잘수 없다.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 지 못하면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성전에 몸바쳐 나서는것은 우리 민족성원들의 성스러운 임무이며 신성한 도리이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

면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어 자

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 적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바친 인생은 력사에 길이 새겨지 며 후대들의 경의를 받게 된다.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의 시대에 살면서 조국통 일성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지 못한다

뗫뗫이 말할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 닌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간직 하고 통일애국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 며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함으로써 올해 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면 그 누구든지 진정한 조선사람이라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 통일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받들어,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통일된 강산에서 다같이 복락을 누릴 그 날을 위해 모두가 힘차게 싸워나가자.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의 전도는 밝으며 이 땅의 미래는 창창하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 겨레는 통 일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온갖 장애물을 밀어내고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슬 기와 용맹으로 강성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겨레여, 난판 을 뚫고헤치며 신심드높이 달려나가자. 허 영 민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국 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0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 하면서 체제대결을 추 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 끼리리념에 따라 민족 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분 제를 민족공동의 리익 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 어서 민족대단결위업이 다. 분렬된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그것 이 곧 조국통일이다. 이 □ 것은 우리 민족이 조국 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 고 평화번영에로 힘차게 나아가자면 무엇보다도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OI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말 해준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 天 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조국 통일운동의 직접적담당 O 자도 우리 민족이며 통 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 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더우기 조국통일투쟁 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내외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오직 민족의 단 합된 힘으로만 격파분쇄할수 있다.

주체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

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 때 내외반통일세력의 책 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조국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 다.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은 자주적통일실현을 위한 결 정적담보이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 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제도 의 차이를 뒤로 미루면서 민족 자주의 기치,애국애족의 기치 인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단합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

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그 어떤 계급,계층의 리해관계도 민족 의 리익보다 앞에 놓일수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이 실현되여야 민족성원 매 개인의 리익도 실 현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계급과 계층, 당파의 리해관계를 떠나 조국통일이라 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해 한 데 뭉쳐야 한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 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마땅히 민 족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결합 시키고 민족의 단결을 지향해나 가야 한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의 대단 합, 대단결의 흐름에 과감히 뛰 여드는데 있다. 북에서 살건, 남 에서 살긴, 해외에서 살긴 애국 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 를 막론하고 모두가 민족의 자

력이다. 온 겨레가 굳게 뭉쳐 조 주적운명개척을 위해 조국통일 대오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

일관하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 동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 국통일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민 족대단결의 중심이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한없이 넓 은 품에 안아주며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광폭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기 위 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바치고계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 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국통일 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온 민족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며 대단합,대단 결의 광장으로 달려나올 때 자 주통일, 평화번영의 래일은 반 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 올해를 민족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나가자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담화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 며 조국통일의 진로를 휘황히 밝 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지금 온 겨레와 전세계를 무한히 격동시

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 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이 대통로 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구호와 방안들은 조성 된 정세와 민족의 지향을 정확 히 반영하고 북남관계를 풀어나 갈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 리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민 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통일대강이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통일애국운동에 거 족적으로 떨쳐나선다면 악화된 북남관계가 풀리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도 열리며 조선반도와 세 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이 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이 나라의 평화 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 는 애국애족의 방안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 지찬동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 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북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 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

○ 시단로 지 ... -라들만의 활동령역으로

지 되여온 우주의 세계에 오늘은 너도나도 뛰여들

정 고있다. 그 과정에 우주 분야의 만으 기기

■ 이 정복되고있다. 위성운

☑ 반기술이 발전하고 유인

우주비행, 우주공간에서

의 탐측,새형의 위성개

발 등이 현실화되여가고

있다. 이러한 우주개발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로씨

야가 이 사업에 보다 큰

트발사를 성과적으로 진

행하였다.이 로케트는

중량급운반로케트 《안가

라-A5》로서 여기에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이 리

용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이 성과적발사를

축하하는 마당에서 오늘

중량급운반로케트 《안가

라-A 5》의 첫 시험발사

가 계획대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로케트-우주분야에 있어서 그

힘을 넣고있다.

<u>▶ 얼마전 도씨야가 ㅜㅜ</u> 분야에서 커다란 의의를

■■ 가진다고 할수 있는 로케 ■■ Ε바시르 서고저ㅇㄹ 지

지난날 몇 안되는 나

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데 대한 문제 등 신년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모두 그러하지 만 특히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 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 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 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 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

롭게 풀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

은 북남정치인들모두의 뇌리를

치고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떤 사회정 치체제의 통합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민족의 단결과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 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북과 남 의 어떤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 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 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 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 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조 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 면 누구나 다 지지찬동하는 민 족공동의 통일대강, 통일헌장으 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여기에 상대방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고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 동의 리익에 맞게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민족우선, 민족중 시,민족단합의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있기때문이다.

장장 70년동안 지속되여온 민족분렬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 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

은 매우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고 그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자기의 성공을

통해 우주개척에서 앞자리를 차

지한 공인된 나라의 하나로 되

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

면서 우주분야에서 새로운 경지

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그로부터 며칠후 로씨야는

통신위성을 탑재한 또 하나의

《쏘유즈-2.16》운반로케트

최근 로씨야가 우주개발중에

서도 가장 관심을 돌리는것이

달탐사이다. 로씨야과학원 우주

연구소 소장은 현재 달탐사선

3대를 발사하는 사업이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탐사선

2대를 추가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가운데 로씨야는

2020년대 후반기부터 20

3 0년대 전반기에 본격적인 유

인달탐사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에 대해 로씨야련방 우

주총국장은 2020년대 후반

기에는 로케트발사시험이 완료

되며 달표면탐사를 통해 기지설

치에 적합한 장소도 발견해낼것

로씨야가 우주분야에서 국제

이라는 전망을 표시하였다.

를 쏴올렸다.

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 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 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 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실증 해주고있다.

> 조선사회민주당은 남조선의 모든 정당, 정치인들이 북남관 계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에 백해무 익한 체제대결의 관점을 버리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 한 거족적흐름에 적극 합류해나 설것을 호소한다.

> 남조선당국은 이제 더이상 불 신과 갈등만을 부추기는 《제도통 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 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과 통 일애국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중 지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 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 인 6.15,10.4선언과 같은 민 족공동의 통일강령을 함께 실천

> 하는데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 씌워온 기본장본인이며 전쟁의 화근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 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 략책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 야 하며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는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조선사회민주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 쟁에 떨쳐일어나 뜻깊은 올해를 🛭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5일 평 양

고있다. 지난해 6월 뿌찐대통 령이 평화적인 우주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로씨야-까자흐스 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문건 에 수표하였다. 2008년 5월 22일 아스따나에서 조 인된 이 협정은 우주공간의 평 화적연구 및 리용분야에서의 호혜적협조를 위한 법적 및 조 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협 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 다. 이어 뿌찐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우주공간연구분야에서 의 협조에 관한 로씨야-니까 라과협정과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리용에 관한 로씨야-꾸바 협정을 비준하는 련방법에 수 표하였다. 이밖에도 로씨야가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건설 에 수많은 자금을 할당할것을 계획하고 워스또츠느이우주발 사장건설위원회창설을 추진시 키는 등 우주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벌려나가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유인우주비 행을 성공시켜 우주정복에 대한 인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기 여한 로씨야에 있어서 오늘의 적극적인 우주개발노력은 응당 한 성과를 가져올것이다.

## 쟁 동 지난해말 미국회 상원에서 2015

년 국가방위권한법안이 통과되였다. 법 안에는 우리의 《위협》에 대응한 미,일, 남조선사이의 3각미싸일방위협력을 강 화할데 대한 문제가 쪼아박혀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3자합의서가 체결되였다. 이것이 일본과 남조선을 북 침의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기 어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과 남조선은 대조 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기본돌격대이다. 손아래동맹자들을 부추겨 대조선포위 환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 치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더우기 미 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강행추 진되고있는 조건에서 동맹자들과의 밀 접한 군사적협력은 보다 긴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군사비 까지 줄이고있는 미국은 그로 인한 군 사적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어 메꾸려 타산하고있다.미국이 뻔뻔스럽 게 우리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이라 는 랑설을 퍼뜨리는것도 그 무슨 《대 응》이라는것을 구실로 3각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자는것이다.

현재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협력체 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두갈래 의 종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남조 선과는 《호상방위조약》을, 일본과는 《안 보조약》을 맺음으로써 3각군사동맹의

기초를 형성하였다.이제 남은것은 남조 선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3각 군사동맹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것이 다. 그런데 남조선과 일본이 력사문제와 독도령유권문제를 놓고 버그러짐으로써 일은 미국이 기도하는바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미국의 각본에 따라 서 명단계에까지 이르렀던 남조선과 일본사 이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이 탄로 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에 부딪쳐

맹

실패한것은 대표적실례이다. 지금에 와서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 사적결탁은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행되고있다. 정보교류대상도 《북의 핵 과 미싸일》정보로 국한시켰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거부적 반응을 《북위협》이라는 외적요인으로 잠 재우자는 미국의 교활한 술책에 따른것 이다. 미국이 회유절반, 압력절반으로 남 조선당국자들을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 에로 한사코 떠밀고있는것은 아시아태평 양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일본을 특별 히 중시하기때문이다. 일본은 커다란 경 M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감 행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재침야망에 들 뗘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광기는 오 늘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미국은 이 러한 일본을 3각군사동맹이라는 하나의 틀거리에 든든히 얽어매두고 전쟁대리인 의 역할을 하게 하려 하고있다.

당면해서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 일방위체계구축을 완비하려 하고있다.

#### 동 한 지난해 4월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 보좌관은 일본집권자에게 남조선의 레이

다로 포착한 미싸일발사직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미, 일, 남조선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운 용을 위한 정보련락체계구축을 제안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비단 우리 공 화국의 군사정보만이 아니다. 남조선배 비가 기정사실화된 《싸드》의 기술적특성 을 놓고보자. 미국이 추진하는 미싸일방 위체계의 핵심장비인 《싸드》는 대륙간탄 도미싸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특히 《싸 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여있는 《X-밴드》레이다의 탐지거리는 1 0 0 0 km이상에 달한다. 그런것만큼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적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미, 일, 남조선 3자의 결 탁으로 형성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조선반도주변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 하며 나아가서 임의의 시각에 상대방의 전략대상들을 무력화시킬것을 노린 선제 공격체계로서 지역긴장의 라는것을 말해준다.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은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것은 정식 선포되지 않 았을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활발히 가동하고있다. 3자국방장관회담이 해마 다 열리고있다. 미국, 남조선사이뿐아니 라 미, 일, 남조선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다. 《키 리졸 사정보교류실현을 통해 저들주도의 미싸 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미,일,남 조선 3각군사동맹의 형성단계에서 벌어

지는 불장난이다. 남조선은 미국과 야합 하여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각종 타격연 습을 벌리고 일본은 제땅을 중계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로 제공하고있다. 3 각군사동맹관계의 틀거리안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핵, 미싸 일 등으로 선제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실행에 다같이 참가하게 되여있다. 광범한 여론이 우리의 《위협》 을 코에 걸고 군사분야에서 이루어진 미,일,남조선사이의 합의서체결이 일 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합법화하 는것으로, 3각군사동맹의 마지막단추 를 채우는것으로 되고있다고 평하는것 은 우연하지 않다. 사실상 3각군사동맹 은 언제든지 전쟁에 진입할수 있는 준 비태세에 있다. 여기에 미국이 산파역을 노는 침략적 3 각공조의 현실적위험성과 엄중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3각군 사동맹이요 뭐요 하며 미국이 제아무 리 동맹자들을 끌어당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울어져가는 《유일초대국》 지위를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전쟁동맹구축 에 발광하는것은 자신의 파멸을 앞당 기는 어리석은짓이다.

3각군사동맹의 현실적가동과 그 엄 중성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전쟁책동 을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나 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 부 잰 하 여 국 O 한 반대 144444444444444







인권불모지, 인권유킨의 왕초

#### 끊임없이 이어지는

2001년 미국에서 9.11사 전투기의 폭격으로 사망한 한 너 의 어린이 9명이 땔감을 마련 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미국은 이 나라 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무고 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륙만행을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제 네바협약》에는 부상자, 환자, 불 구자, 로인, 15살미만의 아동, 임신부 및 7살미만의 어린애를 가진 모성들을 전쟁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할데 대한 내용이 규

아무런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제되여있다. 그런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2005년 미군전투기가 대낮 에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한 마 을을 폭격하여 17명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들은 모두 녀성들과 어린이들이였다. 사람 들을 더욱 경악케 한것은 그들 이 장례식참가자들이였다는것이

퍼부어 무리죽음을 내고도 미국 은 뻔뻔스럽게 《테로기지》를 폭 격하였다고 우겨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이 밝혀지고 국제적인 물의가 일 어나 더는 저들의 행위를 정당 화할수 없게 되자 《오폭》이라고

하면서 변명하여나섰다. 하지만 결코 《오폭》이나 《실 수》가 아니였다. 생겨날 때부터 살인과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 진 날강도집단, 살인무리인 미군 은 고의적으로 무고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목표로 삼았다.

그 이후에 일어난 미군의 살 륙만행들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 해주었다.

탄의 쿠나르주에서 12살미만 감행된 미군의 살륙만행의 극히

인의 장례식에 참가하였다가 이 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이 런 참변을 당했던것이다. 저들에 때 미군무장직승기가 초저공 의해 생죽음을 당한 고인을 추 비행을 하면서 나타났다. 아이 모하는 장례식장에까지 폭탄을 들이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 다.미군비행사놈은 그들이 어 린이들이라는것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마치 짐승사 냥하듯 기관포로 한명한명 따 라가며 쏘아죽이였다.

2012년에 카피사주에서 7명 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이, 파 크티아주에서 6명의 어린이와 1명의 녀성이 목숨을 잃은 사 건, 한 미군병사가 기지에서 빠 져나와 주변의 마을에 침입하여 9명의 어린이와 1명의 임신부 를 비롯한 16명의 아프가니스 탄인을 사살하고 6명에게 부상 을 입힌 사건 등 미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민간인학살사 건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이러 2011년 어느날 아프가니스 한 사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말 그대로 살륙을 도락으로 삼았 다. 전리품으로 죽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냈으며 민간인시 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사진 을 찍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 조차 할수 없는 만행을 감행하 였다.미제침략군은 《BLU-

82》연료기화탄, 송이폭탄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까지 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들이다.

구 사용하였다. 말그대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 는 살인경기였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감 행한 민간인학살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2013년에도 거의 3 0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미군의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여 생죽음을 당하였다.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의 살륙만행이 계속되고있 다. 매일과 같이 무고한 민간인 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고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살륙만행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두말할것없 이 미국의 집권세력이다. 왜냐 하면 미군의 살륙만행이 철두 철미 미집권세력의 지시밑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되 였기때문이다.

지금 미당국자들이 아프가니 스탄에서 감행된 대량살륙만 행. 인권유린행위들이 마치도 개별적인 병사들에 의해 감행된 것처럼 묘사하면서 책임에서 빠 져보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당국자들이 갖 은 오그랑수를 다 써도 조직적 인 인권유린행위의 주범으로서 의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이란 말자체를 입에 올릴 자 격조차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라 는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다.

림 원

본사기자 박송영 다. 그들은 바로 며칠전에 미군 리고 전로씨야에 있어서도 이것 적인 호상협조를 적극 살려나가 들이 미군의 목표물로 되여 목숨 ¬-510032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외조 →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